

2011 부·키 도서목록



도서출판 부·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06-10 산성빌딩 6층
 전화 02 325 0846 팩스 02 3141 4066
 홈페이지 www.bookie.co.kr
 이메일 webmaster@bookie.co.kr
 블로그 blog.naver.com/bookiemb
 트위터 @bookiepub

부키 직거래 서점
 전국 대형 서점 교보문고, 리브로, 서울문고, 영풍문고 온라인 서점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G마켓
 도매 및 출판 동남서적, 만나서적, 북센, 북플러스, 서당, 세원출판유통, 송인서적, 자유서적, 책이랑, 학원서적, 한국출판협동조합, 한일서적
 서울 지역 가람서적, 골드북, 그날이오면, 노원문고, 열지문고, 연신내문고, 예림문고, 지에스북, 프라이문고, 홍익문고
 인천·경기 지역 경인문고, 대동서적, 대한서림, 부평문고, 신세계문고, 씬크빅문고, 한양문고
 대전·충청 지역 계룡문고 대구·경북 지역 한일서적 부산·경남 지역 영광도서 광주·전라 지역 중앙서점, 중앙서림 강원 지역 광장서적

차례

경제·경영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6

나쁜 사마리아인들 7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 국가의 역할 8

쾌도난마 한국경제 · 사다리 걷어차기 · 개혁의 뒷 9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11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 블루진, 세계 경제를 입다 12

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 메이저리그 경영학 13

잘 벌고 잘 쓰는 법 14

한국의 개미들을 위한 워런 버핏 따라하기 15

경제학의 향연 · 우울한 경제학자의 유쾌한 에세이 · 자기 조직의 경제 16

불안한 변영 · 한국의 보노보들 · 보노보 혁명 17

시장인가? 정부인가? · 자유주의: 시장과 정치 · 경제사 오디세이 18

한국의 CEO는 무엇으로 사는가 · 한국의 부농들 · 좋은 인재 나쁜 인재 19

자기계발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20

Stopping 쇼핑 21

4시간 · 성공의 축지법 · 그녀들은 어떻게 CEO가 되었나? 22

나는 오늘도 유럽 출장 간다 · 면접의 정석 · 마법의 세일즈 토크 23

사회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24

한국 외교 24시 25

알파독 26

미래에서 온 편지 27

우리 학교가 달라졌어요 28

레드카드, 대한민국 영어공부 · 비폭력 교과서 · 작은 정부론 · 중국모델론 29

문학

필립 리브의 건인 도시 연대기 4부작

모텔 엔진 · 사냥꾼의 현상금 · 악마의 무기 31

푸르메 책꽂이 · 숯버스 32

부모가 알아야 할 장애 자녀 평생 설계 · 나는 멋지고 아름답다 33

정숙영

무대책 낙천주의자의 무규칙 유럽 여행 · 노플랜 사차원 유럽 여행 35

· 엄마와 두 딸의 발칙한 데이트

아서왕, 여기 잠들다 36

레이스 뜨는 여자 · 까칠한 가족 · 까칠한 가정부 37

옵티미스트 · 미셀 오바마 ·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38

어머니를 돌보며 · 돌아보면 매일이 축복입니다 39

· 내 아이에게 티과 강박증이 있대요!

고양이가 기가 막혀! · 강아지가 기가 막혀! · 유쾌한 수의사의 동물병원 24시 40

씻, 조용히! · 선비들의 고단한 여정 · 백수 산행기 41

인문·과학

남희근 저작선 · 주역계사 강의 42

불교 수행법 강의 · 금강경 강의 43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과학 44

세계를 움직인 과학의 고전들 45

New 과학은 흐른다 ①②③④⑤ 46

아인슈타인의 생각 실험실 ①② 47

최속빈 48

20세기 박물관 시리즈 · 유예된 유토피아, 공산주의 · 인류의 영원한 굴레, 전쟁

· 저속과 과속의 부조화, 페미니즘 · 최초의 세계 제국, 미국 49

바둑의 발견 ①② · 인문으로 읽는 주역 · 주역의 발견 50

베토벤 심리 상담 보고서 · 빼막한 예술가들의 유쾌한 철학 교실

· 인간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51

김교신 전집 · 김교신을 말한다 · 들꽃들이 들려주는 위대한 백성 이야기 52

홍순명 선생님이 들려주는 풀무학교 이야기 · 성서조선 영인본 CD

·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 어느 무교회주의자의 구약성서 읽기 53

다윈은 세상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 달력과 권력 · 요리로 만나는 과학 교과서 54

실용

뇌는 답을 알고 있다 55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

출판편집자가 말하는 편집자 · 광고인이 말하는 광고인 57

· 스텐더디스 · 스텐더드가 말하는 항공 승무원

이것이 바로 미국이다! · 시시콜콜 생생육아 · 나의 영어 공부 이력서 58

학습

꿈지샘의 친절한 수학 중1 상·하, 중2 상·하, 중3 상 59

친절한 도형 교과서 ①②③ · 친절한 수학 교과서 ①②③ 60

중학생 공부 고민 상담실 · 한자 오디세이 · 우리 아이 처음 한자 61

· 한줄로 익히는 초등한자 650 ①②

근간 안내 62

부키에 놀러오세요! 63



100만
독자의 선택,
장하준!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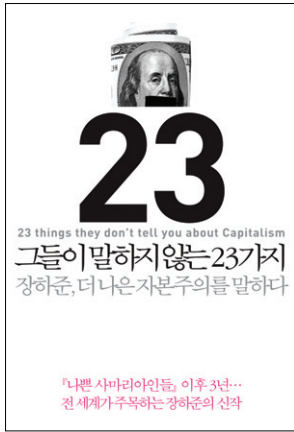


“시장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선(善)이 되기도 하고 악(惡)이 되기도 한다”

장하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사다리 걷어차기』로 신고전학과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뮌헨 상을,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에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하여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장하준은 개발도상국이 신자유주의식의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를 따르기보다는 기간산업을 보호·육성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저작을 통해 성장을 이룬 뒤 ‘사다리’를 걷어치는 선진국의 행태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꾸준히 비판해 왔다.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 등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 자문을 하고 있는 현재 그는 한국의 경제학자 중 노벨 경제학상에 가장 근접한 학자로 꼽히고 있다.

- 장하준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최고의 비평가이지만 반(反)자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 을서버
-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는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으며, 부자 나라는 국제 규제에 저촉되는 선에서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착취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 비정부가구 빈민구호단체 옥스팜
- 장하준은 새로운 경제 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이다. :: 캐나다 작가협회



2010 조선·중앙·동아·한겨레 선정 올해의 책
 2010 알라딘·교보·인터파크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2011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1월의 읽을 만한 책
 북리펀드 2011년 2월 선정도서
 2010 책 읽는 밤 선정 오늘의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한다

장하준 지음 | 김희정·안세민 옮김 | 신국판 | 368쪽 | 14,800원

경제 문제를 말하는 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진짜 자본주의 이야기'이자 알짜배기 '경제 지식IN'

기업은 소유주 이익만 고려하면 되는 걸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올까? 미국에서 보듯이 경영자들의 보수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을 보이기 때문일까? 기업에 유리한 정책은 국가 경제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정부의 시장 개입과 복지 확대는 경제 발전을 저해할까? 교육을 많이 시키면 나라가 더 부유해질까?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곤 하는 경제 문제 23가지에 대해 역사적 사실(史實)과 주변 사례(事例)를 가지고 그 이면을 짚어 준다.

영국에서는 출간 직후 아마존 경제 부문 1위에 올랐으며 이후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에서도 출간되었다. 중국, 러시아, 대만 등의 10개국에서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 영국 노동당수, 장하준과 점심 식사를 해 보길! ::가디언
- 매력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세계화 시대를 공격하는 데에는 반박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파이낸셜타임스
- 좌파와 우파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하준의 목소리는 계속 주목받을 것이다. ::중앙일보
- 지난 30여 년간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 교의를 23가지 명제로 압축해 하나하나 그 신화를 깨뜨린다. ::한겨레



48회 한국출판문화상 인문 교양 부문 수상
 2007 한국출판인회의 선정 이달의 책
 2007 조선·중앙·동아·한겨레 선정 올해의 책
 2008 학술원 선정 우수 학술도서
 2008 예스24·알라딘·교보·인터파크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2007 TV 책을 말하다 선정 올해의 책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 이순희 옮김 | 신국판 | 384쪽 | 14,000원

50만 독자가 선택한 장하준의 경제학 특강!

보통 사람들을 위한 본격 교양 경제서!

『사다리 건너차기』, 『왜도난마 한국경제』의 장하준 교수가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본격 교양 경제서. 자유 무역이 진정한 개발도상국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경제를 개방하면 외국인 투자가 정말 늘어나는지, 공기업 문제가 과연 민영화로 해결 가능한지, 지적재산권이 실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어떤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경제 발전에 적합한 문화나 민족성이 있는지 등 우리 시대의 현안들에 대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책이나 영화 등을 소재로 유쾌하면서도 신랄하게 답해 준다.

- 장하준의 경고는 오싹하지만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노엄 촘스키
- 세계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절로 새롭게 만들어 준다. ::조셉 스티글리츠
- 탄탄한 연구를 기반으로 아름답게 서술된 경제학의 파노라마. ::가디언
- 지금은 개구리가 된, 그러나 한때는 분명히 울려퍼졌던 선진국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하다. ::조선일보
-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무정한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을 꼬집는다. ::동아일보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장하준의 경제 정책 매뉴얼

장하준·아일린 그레이블 지음 | 이종태·황해선 옮김 | 신국판 | 280쪽 | 13,000원



2008 한겨레 선정 올해의 책

국가의 역할

장하준 지음 | 이종태·황해선 옮김 | 신국판 | 496쪽 | 16,000원



2007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학술도서
2006 한겨레 선정 올해의 책
2006 동아일보 선정 올해의 책
2006 출판편집자가 뽑은 올해의 책

신자유주의에 맞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국가의 역할』 등의 저작을 통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해 온 장하준 교수의 경제 정책 매뉴얼. 신자유주의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게 아니냐는 패배주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저자의 실증적인 반박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담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 구조 조정, 공기업 민영화, 금융 산업 재편, FTA 등의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적용 가능한 반(反)신자유주의 정책들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고,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를 따져 볼 수 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이 책은 신자유주의가 주류로 등장한 현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장하준의 대답이다. 장하준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실증적이고 이론적으로 논박한다.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도출되는데, 그것은 바로 최종적 갈등 관리자이자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 담당자로서의 국가의 존재이다. 결국 장하준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 하여금 공론의 장을 통해 합의를 끌어내고 제도화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할 것인지를 여부를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시장 vs 정부,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 조선일보
- 국가여, 신자유주의를 걷어차라 :: 중앙일보
- '보이지 않는 손' 보다 국가를 믿어라... 국가의 역할 :: 동아일보
- 신자유주의는 비과학적 이데올로기 :: 한겨레

과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정승일의 대담을 이종태가 쓰다 | 신국판 | 239쪽 | 9,800원



46회 한국출판문화상 교양 부문 수상
2005 경향·한겨레·중앙 선정 올해의 책
2005 교보문고·네이버 선정 올해의 책
2005 TV 책을 말하다 단독 방영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 형성백 옮김 | 신국판 | 327쪽 | 12,000원



한국일보 선정 우리 시대의 명저 50
2004 문화관광부 교양 부문 추천도서
2004 한겨레가 뽑은 상반기 10권의 책
2004 TV 책을 말하다 선정 올해의 책
2004 출판인회의 이달의 책

개혁의 뒷

장하준 지음 | 신국판 | 252쪽 | 9,800원



2005 간행물윤리위원회 대학신인생 권장도서

경계선 없는 뜨거운 토론! 장하준, 정승일의 한국 경제 진단과 해법!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가 38세대 학자인 정승일 국민대 겸임교수와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한 속 시원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다. 장하준과 정승일은 대담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흑백 논리 및 보수와 진보의 해묵은 이념 대립을 넘어, 좌우를 포함하는 다이나믹한 주장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편입된 한국 경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21세기 한국 경제에 화두를 던져 주었다.

- 한국의 흑백 논리 문화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책이다. :: 한국일보
-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와 국민대 정승일 교수가 한국 경제에 대해 격정적으로 토론한 대담이다. :: 중앙일보

뽀르달 상 수상의 영광을 안겨 준 세계적인 경제 비평서!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과 비교하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실증적으로 고발한 경제 비평서. 역사적 사실과 통계를 기반으로 재산권 보호와 경제 발전과의 연관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실효성 등 그간 통념이자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문제들에 대해 과감하게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뽀르달 상 수상의 영광을 안은 역작이다.

- 환상적인 정도로 유용한 사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 이 망각의 시대에 꼭 필요한 역사적 양심을 일깨워 준다.
:: The Business Economist
- 올해 출간된 세계 경제에 관한 책 중 가장 중요하다. :: Prospect

'개혁'에 사로잡혀 경제 위기를 자초한 개혁론자들의 오만과 편견을 반박한다!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경제 흐름을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게 할 방법은 없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자유롭게 써 나간 경제 에세이. 장하준은 현재의 우리 경제를 '개혁'이라는 '뒷'에 걸린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이른바 진보 세력이 과거와의 절연을 위해 신자유주의자들과 야합함으로써 성장은 없이 빈곤층만 양산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지식의 대중화를 모색하는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는

- 경제학 및 경영학 지식의 대중화와 보편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경제학 및 경영학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석학들의 저작을 엄선하였습니다.
- 기존에 경제학 및 경영학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라이브러리 시리즈를 읽고 나면 경제학 경영학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 1권 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 2권 메이지리그 경영학
- 3권 블루진, 세계 경제를 입다
- 4권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 5권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경제·경영 라이브러리는 계속 출간됩니다.)

-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경제와 관련된 질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해답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학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이다. ※영국 경제학자 조앤 로빈슨

2011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2월의 읽을 만한 책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늘어 가는 세계의 거시 경제를 전망하다
조지 매그너스 지음 | 홍자수 옮김 | 신국판 | 416쪽 | 18,000원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다

세계 경제는 장밋빛으로 물들 것인가, 먹구름에 가릴 것인가?

인구 고령화는 더 이상 노후 대비 수준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재정을 좌우할 수도 있고 나아가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문제다. 저자는 인구 고령화가 경제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고령 인구의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저축 감소, 연금, 의료비 같은 고령화 관련 정부의 공공 지출 증가 문제 등 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 문제들을 살피고 물가와 자산 가격 등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 검토한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되는 선진국과 아직은 인구 연령이 젊은 개발도상국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세계 경제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도 전망한다.

- 독자는 베이비 붐 세대의 긴 노년을 부양해야 하는 운명인 베이비 붐 '후' 세대에 거의 미안한 마음까지 들 것이다. ※영국 역사학자 닐 퍼거슨
-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지만 유독 한국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은 충격적이다 못해 섬뜩하다. ※중앙일보
-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세계와 각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경제학의 시야에서 폭넓게 다룬다. ※한겨레
- 경제 현장과 학계를 오가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답게 실증 사례를 들며 실사구시적으로 논지를 펼친다. ※서울신문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004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일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경제의 모든 것
짐 스탠포드 지음 | 안세민 옮김 | 신국판 |
408쪽 | 14,000원



경제학자들을 믿지 마라!

보통 사람을 위한 자본주의 경제학 입문서

경제학자들은 주로 기업이나 자본가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나 자영업자 같은 보통 사람들의 말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스탠포드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논리와 구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경제학자들에게 속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쉽고 친절한 자본주의 경제학 입문서이다.

- 노동에서부터 세계화, 환경, 금융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현상을 비판적이고 종합적으로 전망할 수 있게 해 주는 책이다. :: 밀콤 쇼어 영국 리즈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경제를 변화시키려는 생각이 있고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 :: 테아 리 미국산별노조총연맹 이코노미스트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003

블루진, 세계 경제를 입다

당신의 청바지에 감춰진
세계 패션 산업과 무역 이야기
레이첼 루이스 스나이더 지음 | 최지향 옮김 |
신국판 | 388쪽 | 14,000원



이제 예전처럼 무심히 청바지를 입을 수 없을 것이다!

현대인의 유니폼 청바지를 통해 본 세계 경제 리포트

옷에 붙은 'Made in ○○○' 라벨만 보고는 그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연관된 수많은 국가, 무역 조약,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베테랑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목화를 채취하는 노동자부터 캄보디아의 열악한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소녀, 이탈리아의 원단 제조업자와 뉴욕의 일류 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패션 산업 현장에서 옷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노동자 인권, 세계화된 시장, 환경오염과 공정 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 청바지는 그 또는 그녀의 엉덩이를 부드럽게 감쌀 때까지 때론 지구를 한 바퀴 돌기도 한다. 그 안에 좀 많은 눈물과 땀과 이야기가 담겼을까. 이 책은 그런 청바지의 일생을 쫓은 '청바지 마일'이다. :: 중앙일보

2007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비즈니스 분야 최고의 책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001

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로버트 하일브로너·레스터 서로 지음 | 조운수 옮김 |
신국판 | 340쪽 | 13,000원



자본주의 500년 역사를 아우르는 두 대가의 마지막 경제학 강의!

경제는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오늘날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책은 경제의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명쾌하면서도 신랄한 답변을 담고 있다. 손꼽히는 경제사학자이자 경제사상가인 로버트 하일브로너와 발군의 경제평론가 레스터 서로가 일반 독자를 위해 집필한 이 책에는 어려운 경제학 용어나 수식, 도표 등이 드물어 쉽게 읽을 수 있다.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역사에 대한, 그리고 경제 성장과 발전, 쇠퇴의 과정에 대한 가장 탁월한 강의이다. :: 보스턴 글로브
- 누구나 흔히 접하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경제분석이나 용어에 대한 진지하되 잘난 체하지 않는, 상세하되 난해하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되 지루하지 않은 토론이다. :: 미즈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002

메이저리그 경영학

야구에 숨겨진 경영의 진수
제프 앵거스 지음 | 황희창 옮김 |
신국판 변형 | 336쪽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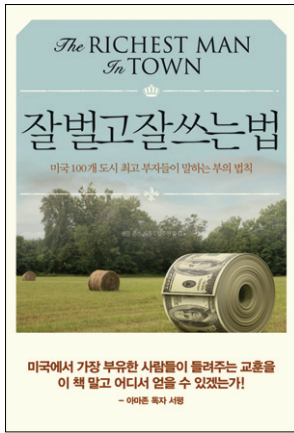


메이저리그 100년 역사에서 뽑아 낸 기업 경영 비법 경영학 지식과 야구의 재미를 한번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긴 세월 동안 온갖 변화를 겪으면서 그 어느 조직보다 탁월한 경영 전략을 수립해 왔다. 경영 컨설턴트이자 야구 칼럼니스트인 저자는 메이저리그의 풍부한 실전 사례와 흥미진진한 뒷이야기, 그리고 상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영의 진수를 설명한다. 베이브 루스, 스키 이치로 같은 프로들의 치열한 승부와 예리한 통찰, 지적인 위트로 가득한 이 책을 통해, 경영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쉽고 재미있게 경영학의 핵심 개념들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 훌륭한 야구책이자 통찰력 뛰어난 경영 입문서!
:: 톰 피터스 『초우량 기업의 조건』 저자,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영원한 팬

북리펀드 2009년 6월 선정도서



잘 벌고 잘 쓰는 법

미국 100개 도시 최고 부자들이 말하는 부의 법칙
랜들 존스 지음 | 강주현 옮김 | 신국판 변형 | 320쪽 | 14,800원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생각'이 만든다

현대 미국 부자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부자학의 정수'

부자 전문가인 지은이가 2년간의 조사를 통해 미국 100개 도시에서 자수성가한 '최고 부자(the Richest Man in Town)' 들을 찾아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최고 부자들은 어떻게 부를 일구었으며, 부자가 된 뒤에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보통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른지,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지, 역할 모델이나 멘토는 누구인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등 현대 미국 부자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 돈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최고 부자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그들은 돈을 통해 원하는 것을 할 자유를 얻었다. 저자 존스는 최고 부자들의 삶을 하나하나 따져 보고, 엘리트 클럽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조건을 들려준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업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타임 온라인
- 단숨에 부자 되는 비법은 실지 않았다. 다만 미국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근본적인 '부의 철학'만을 담았다. ::아주경제



한국의 개미들을 위한 워런 버핏 따라하기

조용준 지음 | 신국판 변형 | 288쪽 | 14,000원

가치투자,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롤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워런 버핏의 가치투자를 한국의 투자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투자 지침을 담았다.

저자는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으로 본 버핏의 투자철학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워런 버핏식 가치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의 자산가치 분석' '기업의 성장가치 분석' '투자 타이밍과 투자기간' 방면에서 소상히 풀어내면서, 단순히 버핏식 투자방법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과정까지 제시한다. 이처럼 투자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준다는 것이 기존의 워런 버핏 투자서와 다른 점이다.

또 한국의 내로라하는 가치투자자 7명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은 물론 저자가 추천하는 장기투자 유망주 10선을 상세한 기업분석과 함께 실었다.

- 우리가 보기에 투자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주가와 비교해 생각하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잘 배우면 됩니다. ::워런 버핏,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 '워런 버핏과의 점심'은 꿈도 꿀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 이 책은 점심 한 끼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워런 버핏과의 점심'이다. ::매일경제
- 투자 대상 기업을 족집게로 집듯 제시해 놓았다. ::헤럴드경제

세계적인 스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책들

경제학의 향연

폴 크루그먼 지음 | 김이수 외 옮김 | 신국판 | 35쪽 |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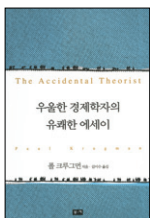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저명한 경제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의 대표작. 경제 사상과 정치권력의 야합과 밀월, 갈등과 결별의 과정을 파고들으로써 경제학을 단순한 이론적 차원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 유수의 대학·대학원에서 현대 경제학 지성사이자 거시 경제학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울한 경제학자의 유쾌한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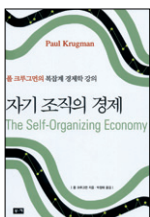
폴 크루그먼 지음 | 김이수 옮김 | 신국판 | 279쪽 | 9,800원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정치적 구호와 어설픈 이론가들이 고집하는 상식과 통념의 허구성을 폭로한 고급 경제 에세이. 정치적 관점과 경제 정책,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기업 다운사이징과 정리 해고, 세계화와 금융 투기, 신경제와 정보기술 등 경제학의 핵심 개념과 다양한 경제 현안 및 이를 둘러싼 어설픈 담론들에 대해 독창적이고 신랄하면서도 유쾌하게 풀어 나간다.

자기 조직의 경제

폴 크루그먼 지음 | 박정태 옮김 | 신국판 | 223쪽 | 12,000원



도시는 왜 강남과 강북의 경우처럼 분리되어 형성되는가? 서울(제1도시)은 왜 부산(제2도시)보다 두 배 규모인가? 기술과 산업이 한 지역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 불황은 왜 일어나며 어떻게 호황으로 전환되는가?

무질서의 카오스 상태에서 예기치 않은 질서로 회귀하는 경제의 자기 조직화(self-organizing) 원리를 규명한 폴 크루그먼의 역저!

불안한 번영

현대 금융경제학이 빚어낸 희망과 절망
이찬근 지음 | 신국판 | 384쪽 | 14,000원



세계 경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한국 경제가 맞이할 도전과 기회를 진단한다!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이 미증유의 사태로 현 금융 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미국의 대규모 재정 적자는 결국 탈(脫)금융, 달러 패권의 종언, 중국 천하로 이어질 것인가?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현실적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2010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학술도서
2009 시사IN 선정 올해의 책

한국의 분노보들

자본주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안치용 외 지음 | 신국판 | 408쪽 |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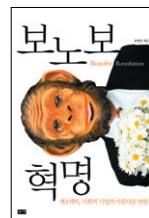
1000원짜리 웰빙 식당, 동네사랑방 같은 병원...
발상의 전환이 만들어 낸 따뜻한 자본주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한다.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이 소외된 이웃과 공연을 한다. 시민운동가가 엄마의 마음으로 친환경버거를 만든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은 이웃과 환경, 문화와 고용, 참살이와 장애인을 생각한다. 칩팬지가 무한경쟁을 쫓는다면 분노보는 상생을 추구한다. 우리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36곳을 찾아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냈다.

2010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북리펀드 2010년 6월 선정도서

보노보 혁명

제4섹터, 사회적 기업의 아름다운 반란
유병선 지음 | 신국판 변형 | 252쪽 | 12,000원



승자 독식은 자본주의의 생리상 당연한 것인가? 80대 20의 법칙은 무한 경쟁 체제에서 불가피한 것인가? 어떤 이는 우리와 가까운 유인원 칩팬지의 본성이 폭력과 탐욕인 만큼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보노보들이 적지 않다. 더욱이 이윤 극대화를 최선으로 생각하던 기업 및 기업가들이 보노보가 되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활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들이 벌이는 보노보 혁명의 현장으로 달려가 보자.

2008 출판인회의 선정 이달의 책

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승욱 외 | 신국판 | 356쪽 | 12,000원



경제학의 두 가지 큰 흐름 '보수'와 '진보'가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해 각각 취하는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경제 입문서. 시장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의 '보수적' 시각과 정부 기능을 중시하는 정부 개입주의자의 '진보적' 시각이 논란이 거듭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2006 학술원 선정 우수 학술도서
2004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이달의 책

자유주의: 시장과 정치

김한원·정진영 역음 | 신국판 양장 | 512쪽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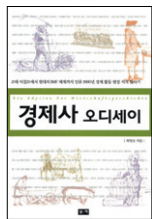
이 책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잠재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갈등이 한국 사회에서도 노출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저자들은 자유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이견이 이념적 갈등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보다 잘 실현해 줄 수 있는 정치와 경제의 모델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여정의 한 국면이 될 것이다.

2006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이달의 책
2006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학술도서

경제사 오디세이

최영순 지음 | 신국판 | 355쪽 | 12,000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일반인을 위한' 경제사 책. 거시적으로는 고대 이집트에서 현대의 IMF 체제까지 인류 역사 5000년에 걸친 자본주의화의 전 과정을, 미시적으로는 인물과 사건을 통해 경제와 생활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드러내 줌으로써, 이론 경제학이 아닌 우리의 삶과 맞물려 돌아가는 실물 경제학을 체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명확한 주제 의식이 전체를 꿰뚫고 있다.

2004 학술원 선정 우수 학술도서

한국의 CEO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필재·유승렬 지음 | 신국판 변형 | 352쪽 |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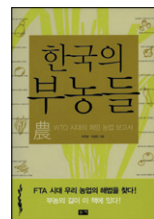


라이프스타일에서 경영 철학까지 현직 CEO 100명의 모든 것을 밝힌다. 재무 구조와 인력 관리, 기업 문화 등 경영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방대한 설문과 심층적 분석은 한국의 대표적 CEO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감 없이 솔직하게 보여 준다. 단순히 기업인으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가족 사랑, 노후 준비, 취미 생활 등 CEO들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엿볼 수 있다.

북리펀드 2010년 4월 선정도서

한국의 부농들

박학용·차봉현 지음 | 신국판 | 256쪽 | 12,000원



국가적 보호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경쟁했던 우리 농업 역시 도도한 세계화, 개방화의 파고를 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지금, 우리 농업과 한국의 농사꾼은 무엇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과연 우리 농업에 미래는 있는가?

이 책의 지은이들은 만 2년 이상 한국의 농업 현장을 발로 뛰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섰다. 이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공한 농업 분야 최고경영자들의 성공 비결을 차분히 분석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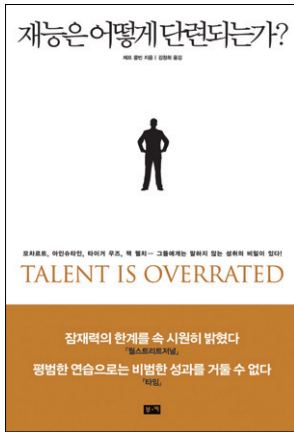
2006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좋은 인재 나쁜 인재

정민정 지음 | 신국판 | 311쪽 | 12,000원



한국의 대표 CEO 55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져 낸 생생한 현장 인재론. 좋은 인재는 어떤 모습인지, 직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CEO들이 직접 겪은 인재들의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야기한다. 성실성, 열정, 창의성 등 좋은 인재의 조건을 수없이 열거하지만 정작 그런 자질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는 기존 자기 계발서들의 한계를 넘어, 현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들에게 반면교사와 역사사지의 교훈을 주고 있다.



북리펀드 2010년 11월 선정도서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제프 콜빈 지음 | 김정희 옮김 | 신국판 변형 | 304쪽 | 14,000원

당신은 '재능'과 '노력'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아인슈타인, 타이거 우즈, 잭 웰치 ... 그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성취의 비밀이 있다!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사람과 그럭저럭 해내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사람들의 대답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열심히 일한 대가라는 것. 하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 주변에는 20년, 30년 넘게 한 우물만 판 사람도 수도룩하다. 또 다른 대답은 재능을 타고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차르트가 놀라운 음악 재능을 지녔고, 워런 버핏이 뛰어난 투자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위대한 성과의 비밀은 무엇인가? 제프 콜빈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고 답한다. 이는 흔히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할 때의 연습이 아니다. 이 연습은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분명 더 나은 성과를 보장한다. 이 책은 자녀교육과 기업의 인재육성에 필요한 실제적인 연습법을 제시한다.

- 잠재력의 한계를 속 시원히 밝혔다. :: 웰스트리트저널
- 평범한 연습으로는 비범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 타임
- 모차르트에서 타이거 우즈까지,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편의 멋진 글을 완성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심오한 깨달음을 준다. :: 도널드 트럼프



Stopping 쇼핑

'잇걸'에서 '빚걸'까지 쇼핑 중독 치료법

에이프릴 레인 벤슨 지음 | 홍선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424쪽 | 1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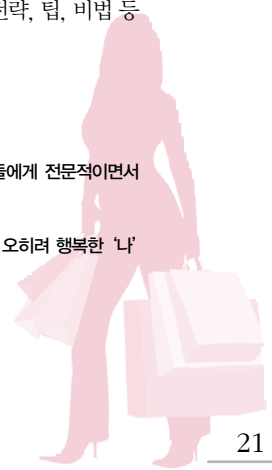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생각

“혹시 나도 쇼핑 중독이 아닐까?”

우울함을 한 방에 날리기 위해 쇼핑하는가? 필요하지도 않을뿐더러 감당할 수도 없는 물건을 종종 사들이는가? 흥청망청 쇼핑하는 습관 때문에 남모름 걱정거리가 생겼는가? 쇼핑을 그만두려 하지만 잘 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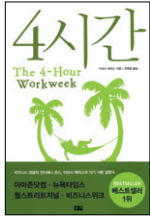
강박적인 쇼핑 장애 치료의 권위자이자 심리학자인 에이프릴 벤슨이 쇼핑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쓴 쇼핑 중독 테라피다. 이 책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쇼핑에 대한 욕구를 어떤 식으로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쇼핑에 쉽게 중독되는 사람들의 심리 분석, 그리고 과도한 쇼핑 습관을 멈출 수 있는 방법과 각종 전략, 팁, 비법 등이 담겨 있다.

- 쇼핑 중독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덜 가졌을 때의 행복을 보여 준다. ::중앙일보
- 강박적 쇼핑 장애 치료에서 독보적 입지에 있는 저자는 쇼핑 습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동아일보
- 현대인을 쇼핑으로 내모는 광고의 홍수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쇼핑을 함으로써 독자들은 오히려 행복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매일경제



4시간

티모시 페리스 지음 | 최원형 옮김 |
신국판 변형 | 412쪽 | 1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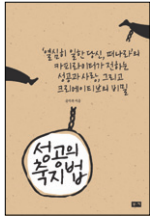


하루에 14시간씩 일하고도 한 해에 4만 달러밖에 못 받던 사내가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면서도 한 달에 4만 달러를 벌게 되었다고? 그것도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서? 그런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은 '재미와 수익을 위한 마약 밀매' 강좌가 프린스턴 대학교를 발각 뒤집어 놓았다. 이 책은 그 강좌를 다듬고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한 것인데, 한마디로 정보 홍수와 시간의 절대 부족이라는 절박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절정 고수가 읊어 주는 자기 사용 설명서이자 웹 2.0 시대의 라이프스타일 리모델링 필드 매뉴얼이라 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비즈니스위크 1위
북리펀드 2009년 1월 선정도서

성공의 축지법

송치복 지음 | 사륙판 | 216쪽 | 10,000원



'암반천연수 맥주', 'OK! SK'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등의 광고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카피라이터 송치복이 말하는 성공의 비밀. '천지인' '음양철법' 등 우리 사상을 바탕으로 광고를 만들어온 이답게 성공을 이루기 위한 일상의 실천보다 성공의 본질을 되물어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의 전환점을 발견하게 한다. 에스키모 인에게 냉장고를 파는 방법은? 하이트맥주가 일 년 만에 1위에 오른 비결은? 지지율 13%이던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이유는? 이 모두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 준다.

그녀들은 어떻게 CEO가 되었나?

정민정 지음 | 신국판 | 279쪽 |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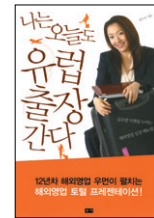


회사원으로, 전업주부로, 학생으로 살던 평범한 그녀들은 과연 어떻게 잘나가는 CEO가 되었을까? 저학력, 장애, 남편의 부도, 사별, 실업... 고단한 고비를 넘기고 화려하게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

적게는 20억에서 많게는 몇백 억대의 연 매출을 올리는, 잘나가는 중소기업의 잘나가는 여성 CEO 14인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 담백하게 들려준다.

나는 오늘도 유럽 출장 간다

성수선 지음 | 신국판 | 280쪽 | 11,000원



삼성정밀화학 여성 해외영업 담당 1호 성수선이 글로벌 마켓 현장을 누비며 견져 낸 해외영업 실전 매뉴얼. 그저 성공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영업 마인드를 일깨워 주는 한편 사이사이에 스킵까지 귀뽀하는 에세이 스타일의 비즈니스 자기 계발 실용서다. 문화와 습관이 달라도, 취향과 스타일이 각각이라도, 관심과 배려로 바이어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 테크닉의 사례도 곳곳에 실려 있다. 여성으로서 10년 넘게 대기업, 더구나 보수성 강한 화학 업계에서 해외영업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저자가 트렁크 바퀴가 닳도록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겪은 일들을 매뉴얼과 함께 경쾌하게 풀어 놓아 책장이 잘 넘어간다.

면접의 정석

서형준 지음 | 신국판 변형 | 256쪽 | 12,000원



면접에 관해서는 수많은 오해가 있다. 자기소개가 중요하고, 족보나 정답이 있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면접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면접에서 성공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한다. 또 지은이가 이전에 대기업, 공기업, 고시, 공무원 시험에서 면접관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일과 응시자들을 코칭한 경험을 바탕으로, 응시자가 면접에 강해지려면 진정 갖춰야 할 게 무엇인지도 세심하게 짚어 준다.

마법의 세일즈 토크

요시노 마유미 지음 | 김정환 옮김 |
신국판 변형 | 192쪽 | 9,500원



연 매출 20억 엔의 실적을 올리는 최고의 세일즈맨 요시노 마유미가 전하는 마법의 세일즈 토크 비법. 최고의 영업 사원은 '소질'이 아닌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믿는 저자는 누구나 최고의 영업 사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고객에게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전화 영업 구성안부터 고객과 약속을 잡는 기술, 고객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계약에 이르는 노하우까지 어떤 분야의 영업 사원이라도 바로 실전에 적용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시한다.



북리펀드 2011년 1월 선정도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패권국가 중국은 천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마틴 자크 지음 | 안세민 옮김 | 신국판 | 620쪽 | 25,000원

미래의 세계 수도는 베이징?

중국은 우리가 아는 세계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이 미국마저 넘어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경우 세계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지은이 마틴 자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들이 경제적인 측면에만 집중되는 것을 경계한다. 지난 2세기 동안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서유럽과 미국이 그랬듯이, 패권 국가의 영향력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문화, 군사적 측면 등 전 방위적으로 발휘된다는 것이다.

'서구 세계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화두로 전개되는 이 책에서는 중국의 미래와 그에 따라 변화될 세계를 올바르게 조망하려면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한다. 문명과 과거 역사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중국인의 특성이 앞으로의 국제 질서와 문화 확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 중국이란 거인과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한국인에게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조선일보
- 새로운 세상이 코앞에 닥쳤다는 긴장감에 스틸마저 느껴진다. ※한국일보
- 대담하지만 신뢰할 만한 예견으로 가득 찬, 대단히 인상적인 책이다. ※가디언
- 오늘날 격변하는 세계를 단 600쪽으로 알려면 이 책을 읽어라.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한국 외교 24시

Y에서 MB까지 외교 현장 리포트

이승철 지음 | 신국판 변형 | 332쪽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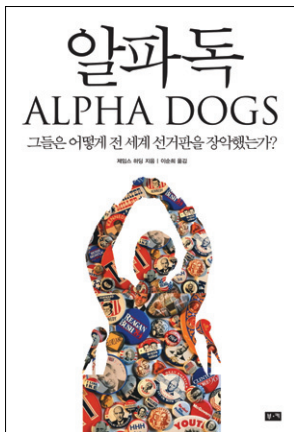


밖에선 방어리 안에선 엘리트, 실리도 자주도 없는 한국 외교의 실체를 고발한다!

20년 동안 우리 외교 현장을 취재한 기자가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한국 외교의 구조적 문제점과 고질병을 정리했다. 구호만 요란할 뿐 자주와 실리 어느 한쪽도 챙기지 못하고, 때로는 대통령을 위한 용비어천가용으로, 때로는 여론 달래기용으로 성과를 포장해 온 한국 외교를 마치 현장을 증계하는 듯한 생동감 있는 일화들을 통해 신랄하게 고발한다.

1부에서는 외교 행태 측면에서 우리 외교의 문제점을 '국내용 외교', '이벤트 외교', '형식 외교' 등으로 정리했고, 2부에서는 외교부의 폐쇄성과 엘리트주의, 예산과 인력 문제, 외교관의 외국어 구사력 실태, 전문성 부족 등 하드웨어 측면상의 문제를 다룬다. 3부에서는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대미, 대중 외교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 한국 외교의 빛과 그늘을 생동감 있는 일화를 통해 소개했다. 현직 기자인 지은이는 우리 외교 행태를 포장과 형식에만 몰두한 '깃발 외교'라고 일갈한다. ※한겨레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관통하면서 다양한 외교 사안을 짚어내고, 외교를 잘 아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경향신문



북리펀드 2010년 8월 선정도서

알파독

그들은 어떻게 전 세계 선거판을 장악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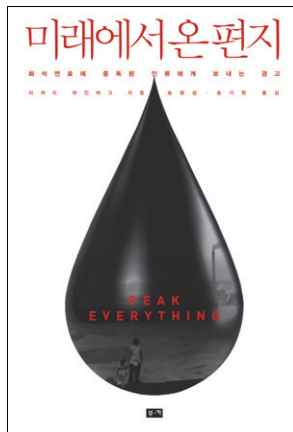
제임스 하딩 지음 | 이순희 옮김 | 신국판 | 351쪽 | 16,000원

김대중과 코라손 아키노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5명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게 자문을 제공해

전 세계 정치 문화를 바꿔 버린 '현대의 마키아벨리들' 이야기

미국 정치 컨설팅 업계의 선두 주자 '소여 밀러 그룹'의 행적을 좇아 세계 선거전의 이면을 파헤친 책. 소여 밀러 그룹은 1970년대부터 미디어를 활용한 이미지 정치로 전 세계의 선거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한국의 김대중,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으며 달라이라마, 레흐 바웬사, 시몬 페레스 등 5명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게 자문을 제공했다. 반면 이들의 전략은 정치인을 상품으로, 유권자를 소비자로 전락시켰다. 이 책은 소여 밀러 그룹을 통해 정치 문화가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추적한 한 편의 생생한 논픽션 드라마이다.

- 소여 밀러의 기술은 세계적인 중요 상품이 되었으며, 그들의 후예는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존 매케인 캠프에서 활약했다. ※ 뉴스위크
- 솔직하고 통찰력이 뛰어나다. 혐오스럽지만 효과적인 정치 광고처럼 이 책은 독자의 시선을 붙잡는다. ※ 이코노미스트
- 알파독(alpha-dog)이란 신출귀몰한 정치컨설팅 업체들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썰매가 무리에서 방향을 잡고 선두에서 이끄는 대장 개라는 뜻이다. 물론 이 책은 이미지 선거를 찬양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키아벨리적 선거판'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그게 엄연한 현실이다. ※ 중앙일보



2010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
북리펀드 2010년 7월 선정도서

미래에서 온 편지

화석연료에 중독된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리처드 하인버그 지음 | 송광섭·송기원 옮김 | 신국판 | 276쪽 | 14,000원

인간은 어떻게 지구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앞을 내다보는 프로메테우스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에피메테우스의 지혜와 성찰이 필요하다!

이 책은 석유정점 문제뿐 아니라 유기농업에서 공업디자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언어학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주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심오한 예측이 조합된 도발적 생각들을 풀어 놓고 있다. 저자는 현대 문명의 모든 측면에서 한계와 종말의 징후가 보인다면서, 인구 증가, 서식처 파괴, 다른 재생 불가능 자원들의 고갈 등 제반 요소들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볼 것을 강조한다.

저자는 쇠퇴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작은 마을, 대가족, 지역 공동체의 자치경제 등에 기반을 둔 생존 형태로의 회귀는, 특히 전 지구적 통신 수단과 같은 지난 산업 시대의 장식품이 곁들여진다면, 다수의 현대 도시인이 꿈에 그리던 생존 방식을 미래 세대에겐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 이제 우리는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녀보다 지속 가능한 인류의 삶을 위해 농부의 삶을 지향하고 타인을 돌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가난한 의사'와 '생활 속의 과학자'가 되려는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럴 때 아마도 우리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조한정 연세대 교수
- 하인버그의 말처럼 모두가 고통스럽겠지만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를 버리고 '더 조금, 더 느리게, 더 작게'로 개종을 서두를 때다. ※ 경향신문



우리 학교가 달라졌어요

좋은 학교'를 향한 1년 6개월의 분투기

후지하라 가즈히로 지음 | 전선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244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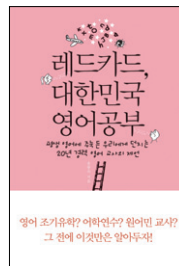
교육 현장에 평론가는 필요 없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이 함께 만드는 공립학교 이야기

2003년 도쿄의 스키나마 구립 와다 중학교에 도내 최초의 민간인 출신 교장으로 취임한 이는 비즈니스맨으로 맹활약해 온 후지하라. 세 아이의 아버지인 그는 교장 취임 이후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본부, 맞춤형 과외 '토요 글방', 입시학원과 제휴한 '방과 후 수업' 등 갖가지 노력을 기울여 폐쇄 위기에 처했던 와다 중학교를 학력 1위 학교로 변모시킴으로써 일본 전역에 '와다중학교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바라 마지않는 공교육의 부활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후지하라 교장이 와다 중학교 개혁에 뛰어든 처음 1년 6개월의 생생한 기록을 모은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과제가 아님을, 아니 오히려 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가즈히로 교장에 따르면 '학력'이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수업만이 아니라 모든 활동이 학력을 높인다. 와다 중학교의 특별한 프로그램엔 이런 교육 철학이 담겨 있다. 여장(女裝)하는 남성을 수업 시간에 초청해 '차별'을 주제로 토론하게 하고, 사회학자를 초청해 '자살'을 주제로 한 역할극과 토론까지 하게 하는 대목은 과감하다 못해 파격적이다. ※중앙일보
- 지금은 오사카부 교육 특별고문으로 활동 중인 일본인 전직교장의 체험담은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있는 우리 교육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일보



레드카드, 대한민국 영어공부

송봉숙 지음 | 신국판 변형 | 224쪽 | 11,000원

30년 영어 공부를 하고 20년 동안 영어 교사로서 지낸 저자가 마흔들의 나이에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TESOL 석사과정에 입학한다. 그곳에서 저자는 제2언어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영어 구사에서 원어민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간 자신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좌절하게 된 이유는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잘못된 교육 목표 때문이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비폭력 교과서

아키 유키오 지음 | 김원식 옮김 | 신국판 | 199쪽 | 8,000원

학교 폭력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폭력을 살펴봄으로써, 폭력과 비폭력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시각과 비폭력이 단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공한다. 비폭력 운동은 폭력, 악, 사회의 부정(不正)에 분노한 나머지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앞장설 뜻을 가지는 '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작은 정부론

정정길 외 지음 | 신국판 양장 | 320쪽 | 20,000원

1980년대 이래 20년 이상 작은 정부를 지향한 정부 개혁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정부 개혁 과정과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책. 작은 정부의 전모를 경제적, 관리론적, 권력적, 지방 분권적 시각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파악한다.



중국모델론 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전성홍 엮음 | 신국판 양장 | 360쪽 | 20,000원

중국모델의 개념과 이론, 중국의 독특한 자생적 제도와 중국모델의 전망과 과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모델론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중국모델론'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기존 패권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으며 다른 후발 국가들이 이를 참고하거나 추종할 만하다는 측면에서 본 신조어다.

롤러코스터처럼 질주하는 상상력과 거대한 스케일

더럽고 위험한 내장 갑판엔 하층 계급과 범죄자가 살고 쾌적하고 부유한 상층 갑판엔 고위직이 사는 철저한 계급 사회 런던. 열다섯 살의 고아 소년 톰 내츠워드는 역사학자 길드의 3등 견습생이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우상이자 역사학자 길드 회장인 테데우스 벨런타인을 돕다가 일그러진 얼굴의 소녀 헤스터 쇼를 만나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헤스터와 함께 런던 밖으로 떨어지게 된다.

- 2002 네슬레 스마티즈 어워드 금상 수상
- 2003 BBC 블루 피터 북 선정 올해의 책
- 2004 웨버 카운티 도서관 선정 꼭 읽어야 할 SF 걸작
- 2007 일본 SF대상 성운상(星雲賞) 해외장편 부문 수상

간인 도시연대기1
모텔 엔진

필립 리브 지음 | 김희정 옮김 | 신국판 변형 | 436쪽 | 12,000원



간인 도시연대기2

사냥꾼의 현상금

필립 리브 지음 | 김희정 옮김 | 신국판 변형 | 448쪽 | 12,000원



간인 도시연대기3

악마의 무기

필립 리브 지음 | 김희정 옮김 | 신국판 변형 | 464쪽 | 12,000원



빙하와 바다를 넘나들며 펼쳐지는 질투와 배신 그리고 전쟁

견인 도시 런던이 '반 견인 도시' 세력을 무릎 꿇리려다 멸망하고 약 2년 후, 대파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톰과 헤스터는 '앵커리지'라는 썰매 도시에 도착한다. 톰이 아름다운 십 대 여왕 프레이아에게 잠시 마음이 흔들리자 헤스터는 사냥꾼 도시 아크에인절로 가 앵커리지의 소재를 밀고한다. 허풍선이 역사학자 페니로얄, 베일에 싸인 미스터리 집단 '로스트 보이', 그리고 외딴 섬 로그스 루스트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런 실험...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전개, 두 주인공의 복잡한 내면세계 묘사가 결합되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틴 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바다 위의 모험과 로맨스

앵커리지에서 결혼을 한 톰과 헤스터. 그들에게엔 이제 열다섯 살이 된 딸 렌이 있다. 어느 날 기생 해적 로스트 보이들이 전쟁을 종식시킬 가공할 무기에 대한 정보가 쓰여 있다는 '틴 북'을 찾기 위해 앵커리지로 숨어든다. 틸 북과 함께 납치된 렌, 딸을 찾아 나선 톰과 헤스터, 틸 북을 탐내는 노예 상인 슈킨과 시장 페니로얄, 그린 스톰의 사령관 팽, 헤스터를 찾아다니는 슈라이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와 숨 가쁜 모험이 펼쳐진다.

전 세계 SF 독자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필립 리브의 견인 도시연대기 4부작

〈반지의 제왕〉 피터 잭슨 감독, 영화화 결정!

핵전쟁으로 추정되는 '60분 전쟁'으로 인해 종말을 맞은 지구. 60분 전쟁은 문명을 파괴하고 지구에 거대한 지질학적 변동을 초래했다. 종말 이후에도 끈질기게 생존한 소수의 인류는 지진,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던 중 영국의 발명가 니콜라스 퀴크의 '도시진화론'을 받아들인다. 도시진화론은 자원이 한정된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류가 '견인 도시', 즉 거대한 바퀴와 모터에 의지해 움직이는 도시를 만들어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잡아먹으며 생존해야 한다는 일종의 '약육강식' 시스템. 퀴크의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온갖 크기의 견인 도시가 만들어져 서로 쫓고 쫓기며 지구를 배회하게 된다. 오랜 시간이 흘러 지구가 다시 안정된 후에도 '견인 도시주의자'들은 도시진화론을 맹신하며 이동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인류가 도시진화론대로 살아간다면 심각한 자원 고갈과 자연 파괴로 지구라는 행성이 지속될 수 없다고 믿는 '반 견인 도시주의자'들은 연명을 조직해 그들과 대립한다.

시리즈의 첫 세 권이 출간되었고 마지막 권 『황혼의 들판』(가제)이 2011년 여름 출간된다.

- 「모텔 엔진」은 비범한 과학적 상상력과 탄탄한 사회·경제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섬세하고 감동적인 인간 드라마를 엮어 낸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 견인 도시 연대기는 스릴러물, 성장 소설 그리고 사회 소설로도 읽히는 다양한 얼굴의 SF다. 블록버스터 영화 못지않은 긴박감을 자아내는 동시에 심리 묘사가 눈길을 끈다. ※ 중앙일보
- 필립 리브는 가히 SF 어드벤처계의 디킨스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 가디언
- 필립 리브의 복잡다단한 상상의 세계는 해리 포터의 마법 세계마저 단순해 보이게 할 정도다. ※ 인디펜던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읽는 이야기 푸르메책꽂이

푸르메책꽂이는 재활전문병원 및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 푸르메재단과 도서출판 부키가 함께 펴내는 시리즈입니다. 2009년 9월 증권전문가 최중석 씨가 푸르메재단에 기부한 출판기금을 씨앗으로 만들어집니다. 후원자의 소중한 기금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알찬 정보를 주고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는 따뜻한 책들을 꾸준히 펴내겠습니다.

푸르메책꽂이 3

썬버스

특수학교 버스, 미국을 횡단하다

조너선 무니 지음 | 전미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400쪽 | 13,500원



장애를 극복한 아이비리그 졸업생, 다시 썬버스에 오르다
읽기장애를 극복하고 명문 브라운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저자가 썬버스를 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며 '비정상' 딱지가 붙은 사람들을 만난다. 자신은 여전히 '정상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괴로운데 그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알기 위해서다. 학습장애 소년, 여자가 되고 싶은 어부 화가, 시청각 중복장애 소녀, 다운동후군 처녀 등을 만나면서 지은이는 '과연 사람들이 규정하는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남과 다른 나, 나와 다른 남을 받아들이는 소통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 무니의 탁월한 유머는 썬버스 여행을 매우 감동적으로 만든다. 그의 자아는 과거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고 웃고, 재미를 찾아내고, 뭔가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킨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푸르메책꽂이 2

부모가 알아야 할 장애 자녀 평생 설계

페기 루 모건 지음 | 전미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304쪽 | 14,000원



내가 죽고 나면 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부모가 병이나 사고로 장애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되더라도 자녀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사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지침서. 지은이는 중증복합장애인인 이들의 성년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 및 주거 프로그램을 알아볼 때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친구·변호사·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자녀를 지켜 줄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법, 유언장 작성 및 유산 신탁에 이르기까지 장애 자녀의 부모가 알아야 할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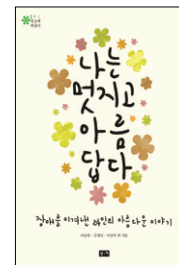
- 이 책은 자녀를 보호하고 감독하고 자녀의 삶의 질을 더 높여 줄 사람들과의 '관계망 구축'을 되풀이해 강조한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은 부모가 상처받기 쉬운 자녀에게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 베스 마운트 의학박사

푸르메책꽂이 1

나는 멋지고 아름답다

장애를 이겨 낸 24인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승복 김세진 이상목 외 지음 | 신국판 변형 | 272쪽 | 11,000원



꿈을 향해 달려 나가는 순간, 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병원 재활의사가 된 '슈퍼맨' 이승복 박사, 올림픽을 목표로 새벽부터 물살을 가르며 로봇다리 세진이, '한국의 스티븐 호킹' 서울대 이상목 교수, 세계 4대 극한 마라톤을 모두 완주한 시각장애 마라토너 송경태 씨... 장애를 딛고 각 분야에서 성공한 24명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장애를 인정하되 그 안에 머물지 않고 꿈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 나갔다. 오히려 장애 '덕분'에 꿈과 인생의 의미를 찾은 사람도 있다. 노력 끝에 꿈을 이뤄낸 이들은 수많은 장애인에게 희망이 되었다. 『나는 멋지고 아름답다』는 이들이 건네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2010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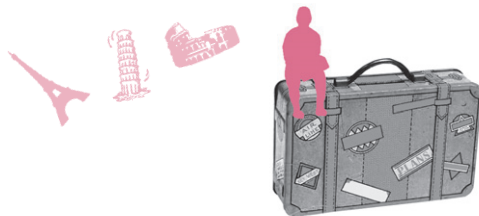
블로그 <http://blog.naver.com/mickeynox>

정숙영

여행 작가이자 로맨스 소설가인 정숙영은 인터넷에선 MickeyNox 또는 정박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대학 졸업 후 몇 년간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지 못해 심각하게 방황하다 2002년과 2003년, 열걸에 떠난 두 번의 유럽 배낭여행을 계기로 여행 전문 기자가 되었고, 지금은 여행 작가가 되어 '딱'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하며 살고 있다.

'아님 말고 알게 뭐람'의 모험 정신으로 푹푹 뭉친 그녀는, 자잘하지만 유쾌한 온갖 실수와 삽질로 독자들을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무대책 낙천주의자의 무규칙 유럽 여행』, 『노플랜 사차원 유럽 여행』을 비롯해 몇 권의 여행 가이드북을 냈으며 '우리 딸이 달라졌어요' 프로젝트에 스스로 참가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엄마와 두 딸의 발칙한 데이트』를 통해 증계하기도 했다. 부키에서는 인도차이나 여행기 『사바이 인도차이나』(가제)를 곧 출간할 예정이다.

- 필자가 몸으로 체험했던 '삽질'과 '무대뻘'은 배낭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럽 여행 시뮬레이션이 될 것이다. 일기체의 문장이 읽는 재미까지 준다. ::한겨레
- 여타 여행서들이 여행지 곳곳을 누비며 풍광사진을 담을 때, 필자는 길 위에서의 감성을 꼼꼼히 기록한다. 배꼽이 빠지게 유쾌한 문체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해 색다른 여행 지침서의 매력을 발산한다. ::경향신문



무대책 낙천주의자의 무규칙 유럽 여행

정숙영 지음 | 신국판 변형 | 312쪽 | 12,000원



이방인도 아니고 현지인도 아닌 딱 동네 구경꾼처럼 런던과 파리, 로마를 어슬렁거린다!

2006년 출간되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플랜 사차원 유럽 여행』의 저자 정숙영 씨의 두 번째 유럽 여행 에세이. 2002년과 2003년의 유럽 여행 이후 만 3년 만에 필자가 다시 찾은 유럽, 그 가운데에서도 주로 런던과 파리, 로마 일대의 가을과 겨울 여행 기록을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필자의 모습, 한층 업그레이드된 유머와 필력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노플랜 사차원 유럽 여행

정숙영 지음 | 신국판 변형 | 407쪽 | 12,000원



유럽 여행을 날로 먹는 가장 유쾌한 비법!

로맨스 소설 작가이자 만지 관광청 여행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숙영(일명 정박사, 미키노스)의 두 차례에 걸친 유럽 여행기. 초보 배낭여행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삽질'과 '실수'가 고스란히 들어 있어 배낭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유머로 버무려진 저자의 유쾌한 입담을 따라가다 보면 '반면교사'의 교훈도 얻을 수 있다.

엄마와 두 딸의 발칙한 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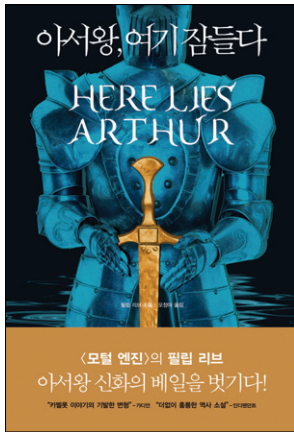
정숙영 지음 | 신국판 변형 | 240쪽 | 9,000원



무심한 모녀에서 다정한 친구로, 엄마와 두 딸의 티격태격 데이트 프로젝트!

무덤덤하고 때로 지겹기도 한 시큰둥한 관계의 엄마와 두 딸이 '어쩌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집 밖에서 만나 세계 음식을 먹고, 영화나 공연을 보고, 쇼핑과 산책을 하며 티격태격 데이트하는 과정을 솔직 담백하게 그린 에세이. 가족으로 묶였을 뿐 성격도 취향도 입맛도 판이하게 다른 세 모녀가 데이트를 계속하면서 서로의 개성과 서로 간의 거리를 인정하며 성숙해지는 성장기이기도 하다.

2007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2007 네슬레 스마티즈 어워드 동상
2008 카네기 메달 수상
북리펀드 2010년 11월 선정도서

아서왕, 여기 잠들다

필립 리브 지음 | 오정아 옮김 | 신국판 변형 | 384쪽 | 12,000원

당신이 한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서왕을 만난다!

SF의 대가 필립 리브, 아서왕 신화의 베일을 벗기다!

서기 500년경,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난 브리튼은 여러 개의 작은 왕국으로 분열된 가운데 야만인 색슨족의 침략에 시달린다. 브리튼 남서부에 사는 노예 소녀 그위나는 한밤중에 몰아닥친 아서 부대의 습격을 피해 달아나다 마르딘에게 구출된다. 하지만 알고 보니 마르딘은 아서의 음유시인이자 책사로, 아서가 브리튼을 통일하도록 앞장서 돕는 인물이다. 마르딘은 그위나를 이용해 '호수의 여인'이 아서에게 명검 '칼리번'을 건네준 것처럼 꾸미는데…….

아서왕 신화의 마법과 환상을 걷어 내고 현실에 기반을 둔 역사 소설.

- 숨 가쁘게 책장을 넘기게 만드는 모험담이자, 영리한 역사 소설이다. ※카네기 메달 심사평
- 저자 리브는 우리가 믿는 진실이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꼬집는다. 이 때문에 이 작품은 출간 당시 영국의 현실 정치에 대한 풍자로 읽히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

레이스 뜨는 여자

파스칼 레네 지음 | 이재형 옮김 | 사육판 | 192쪽 | 9,800원



문학이 씨줄로, 철학과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이 날줄로 얽혀 있는 프랑스 소설의 진수. 공쿠르 수상작일 뿐 아니라 이자벨 위페르 주연의 영화 《레이스 짜는 여인》의 원작이기도 하다.

프랑스에서만 지금까지 250만 부가 넘게 나갔고, 2000년대에 들어서도 2만 부 정도씩 꾸준히 읽히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 언어로 두루 번역되었는데, 특히 러시아에서는 60만 부가 넘게 팔렸다. 68혁명의 소용돌이를 건너온 작가 파스칼 레네의 날카로우면서도 웅숭깊은 현실 인식이 문학, 나아가 예술 작품으로 피어난 소설이다.

과레스키 가족일기 까칠한 가족

조반니노 과레스키 지음 | 김윤한 옮김 | 사육판 | 408쪽 | 9,800원



‘돈 카밀로와 페포네’ 시리즈로 지난 몇십 년간 꾸준한 사랑받아 온 조반니노 과레스키의 자전적 가족 소설. 과레스키는 『까칠한 가족』에서 평범한 가족이 엮어 가는 소소한 일상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애증, 오해와 갈등을 특유의 유머와 날카로운 필치로 그려 내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유명 소설가이나 집안에서는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화자 조반니노와 약간은 몽상적이고 현실 감각이 없는 듯한 마르게리타,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갖고 있는 소년 알베르티노, 어리지만 논리 정연한 소녀 파시오나리아는 가족이라는 무대를 통해 인간의 삶과 일상적 드라마를 매우 정교하게 재현하고 있다.

과레스키 가족일기 까칠한 가정부

조반니노 과레스키 | 김윤한 옮김 | 사육판 | 352쪽 | 9,800원



『까칠한 가족』 그 두 번째 이야기. 『까칠한 가족』이 과레스키와 아내 마르게리타, 아들 알베르티노와 딸 파시오나리아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풀었다면, 이 책에서는 손자 미켈로네와 손녀 페노메나, 가정부 조가 새롭게 등장한다.

알베르티노와 파시오나리아의 독립 이후 과레스키 부부는 신세대 현대 여성인 가정부 조와 함께 살게 되는데,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딸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들이 엮어 가는 일상은 너털웃음을 터뜨릴 정도로 유쾌하면서도 따뜻하다. 또한 이 책을 다 읽은 후엔 가족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될 만큼 여운이 남는 작품이다.

옵티미스트

인생의 '되도록 밝은 면' 탐구 보고서
로렌스 쇼터 지음 | 정숙영 옮김 |
신국판 | 444쪽 | 13,500원



'내가 무기력한 건 나쁜 뉴스 때문이야!'

기후 온난화, 테러, 기아, 에너지 위기... 신문이든 텔레비전이든 모두 우울하고 불안한 소식만 전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 우울해지고 내 인생도 꼬인다.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나쁘기만 한 것일까. 인생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동기'가 필요하다. 그래, 낙관주의자들을 인터뷰하고 책을 쓰자. 그러면 나는 유엔 본회의장에서 낙관주의를 연설하는 유명인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낙관주의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2010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3월의 읽을 만한 책

미셸 오바마

엘리자베스 라이트 지음 | 박수연·홍선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352쪽 | 13,000원



변화와 희망의 퍼스트레이디

미국의 첫 흑인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의 인생 역정을 보여주는 책. 시카고에서 자란 어린 시절부터 프린스턴과 하버드에서의 대학 생활, 그리고 일류 법률 회사에서 촉망 받는 인재였던 그녀가 버락 오바마와 처음 만난 이야기부터 그녀만의 정치적인 신념까지 모든 것을 담았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에게 용기와 꿈, 희망과 자극을 선사한다.

딸과 함께 읽는 미셸 오바마 이야기

미셸 오바마가 살아온 이야기에서는 이 시대 최고의 여성 역할 모델로서 그녀 내면에 지닌 당당함을 발견하게 된다. 시카고 서민층 가정에서 어렵게 자란 그녀는 흑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차별과 어려움을 끝없는 도전으로 넘어섰고 프린스턴과 하버드 로스쿨, 일류 법률 회사에 들어가는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미셸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열정을 좇아 사회봉사에 뛰어든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도전하는 한 역사적인 여성에 관한 전기(傳記).

북리펀드 2009년 7월 선정도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데이비드 클버트 지음 | 박수연 옮김 |
신국판 변형 | 9,800원



어머니를 돌보며

딸의 기나긴 작별 인사

버지니아 스템 오언스 지음 | 유지화 옮김 |
신국판 변형 | 292쪽 | 11,000원



파킨슨 병에 걸린 80대 어머니를 60대 딸이 돌보며 기록하다 어느 날 갑자기 파킨슨 병에, 그리고 곧이어 치매에 걸린 어머니. 같이 사는 아버지도 심장질환이 있어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저자 자신마저 점점 시력을 잃어 가게 된다. 이런 어려움 속에 저자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집과 직장을 뒤로하고 고향 집으로 향한다. 그리고 7년 동안 집과 노인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처음엔 것처럼 길고 어두우리라 생각지 못한 터널을 지나간다. 처음에는 간호 기록을 남기려고, 나중에는 견디기 힘든 현실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묵묵히 적어 나간 고백을 정리한 글이다.

2007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최고의 책 Top 150
2008 크리스체너티 투데이 선정 베스트 도서 10
2009 중앙일보 선정 올해의 책 중 놓치지 아까운 이 책

돌아보면 매일이 축복입니다

구정모 지음 | 신국판 변형 | 280쪽 | 10,500원



우리 삶의 여정에 띄우는 신부님의 성찰의 메시지

평생 청빈, 정결, 순명을 지키고 살 것을 서원하고 수도원에 들어온 지 23년째를 맞는 구정모 신부님이 만난 세상과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한 성직자가 걸어왔던 자취를 통해 우리는 가난하고 초라할지라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바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신부님은 지금까지의 삶이 자신의 고통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의 고통을 사랑하도록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내 아이에게 틱과 강박증이 있대요!

양엘라 솔츠·아리베르트 로텐베르거 지음 |
박진곤 옮김 | 신국판 | 288쪽 | 12,000원



투렛 증후군 환자와 가족을 위한 희망 보고서

틱과 강박,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의 부모와 의사가 쓰고 엮은 투렛 증후군 환자들의 투렛 증후군 극복기. 한 소년의 어머니가 아들의 투렛 증후군 치료 과정을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명의 환자와 가족들이 등장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나아가 투렛 증후군에 흔하게 동반되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강박 장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양이가 기가 막혀!

우아한 고양이를 미치게 하는 50가지 고민
베스 아델먼 지음 | 정숙영 옮김 | 박대곤 감수 |
신국판 변형 | 268쪽 | 11,000원



미국 고양이 작가 협회에서 뽑은 고양이 행동에 관한 최고의 책

우아한 태비의 고양이 상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멧쟁이 고양이 동지 여러분. 오늘도 머리가
아프다고요? 왜요? 반려인이 또 말귀를 못 알아듣나요? 줄
려 죽겠는데 자꾸 만지면서 놀아 달라고 귀찮게 한다고요?
쥐를 잡고 싶은데 반려인은 볼품없는 오뎅꼬치만 흔들고
있다고요? 아이고, 저런, 잘 오셨어요. 당신에겐 이 태비의
특별한 조언이 필요하군요. 어떻게 해야 반려인을 제대로
길들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지요.

강아지가 기가 막혀!

순진한 개를 미치게 하는 50가지 고민
스티브 더노 지음 | 정숙영 옮김 | 박대곤 감수 |
신국판 변형 | 268쪽 | 11,000원



개의 눈높이에 맞춘 완벽한 애견 가이드

친절한 개비의 강아지 상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명량한 강아지 동지 여러분. 오늘도 머리가
아프십니까? 왜요? 주인이 또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많
이 먹고 쑥쑥 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밥그릇을 뺏는
다고요? 하루 종일 집 안에 처박아 놔서 뱅뱅 맴만 돈다고
요? 쫓쫓, 저런, 잘 오셨습니다. 당신에겐 이 개비의 특별한
조언이 필요하군요. 어떻게 해야 주인을 제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온 동네 개들이 미워하는 작은 병원 동물원의 일기

동물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한 기록. 배
꼽 빠지게 낄낄거리며 웃을 수 있는 정말 유쾌한 이야기.
이 책을 재미있게 읽는 동안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필수 지식과 정보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 한마디
로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이
책 한 권에 다 있는 셈이다.

유쾌한 수의사의 동물병원 24시

박대곤 지음 | 신국판 변형 | 320쪽 | 9,000원



쉿, 조용히!

꽃내기 사서의 좌충우돌 도서관 일기
스콧 더글러스 지음 | 박수연 옮김 | 신국판 |
424쪽 | 13,500원



선비들의 고단한 여정

딸과 함께 읽는 답사 여행기
이용재 지음 | 신국판 변형 | 268쪽 | 11,500원



백수 산행기

김서정 지음 | 신국판 변형 | 292쪽 | 11,000원



시트콤보다 더 웃긴 요절복통 도서관 이야기

도서관 사서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경쾌한 필체로 풀
어 낸 에세이. 꽃내기 사서인 저자는 단순히 책을 좋아하는
것과 사서의 일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직업에 끊임
없이 회의한다. 그러면서도 도서관에서 만난 노인, 아이,
노숙자들을 통해 삶에 대해 배우고 도서관의 의미와 사서
의 역할을 고민한다. 저자에게 일어나는 어처구니없고 유
쾌하며 때로는 감동적인 사건들을 읽으며 우리는 저자에게
공감하는 동시에,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어라, 가까운 곳에 이런 역사 현장이 있었네?

건축 평론가로 『딸과 함께 떠나는 건축 여행』 등을 통해 건
축물에 담긴 역사와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온 저자가
이번에는 선비들의 발자취를 따라 나섰다. 삼촌 수양대군
에게 왕위를 빼앗겨 궁궐에서 쫓겨난 단종에서 대한제국
마지막 황세손 이구까지, 그들의 고단한 여정이 남아 있는
옛 건축물을 하나하나 찾아간다. 아빠와 딸의 대화를 통해
딱딱한 교과서 속 선비들이 톡톡 튀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
난다.

2009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불혹의 나이에 갑자기 백수가 된 저자가 어느 날 문득 북한
산을 찾게 되고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든다. 우스꽝스러운 초
보 산행 장면은 한 편의 콩트고, 산에서 떠올리는 추억은 산
길에서 만난 인생이고, 둔한 몸으로 힘겹게 지나간 등산 코
스와 산행 노하우는 친절한 산행 가이드이며, 북한산의 역
사와 귀동냥으로 전해 들은 비사(秘史)·야사(野史)는 문화유
적 답사기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는
청년백수, 3040 실직자들에게 전하는 공감과 치유의 글.

북리펀드 2009년 5월 선정도서

동양학의 최고수에게 듣는다 남회근 저작선

남회근 선생은 중국 대륙은 물론 대만, 홍콩 등 중국어권 사람들에게 큰 스승으로 존경받는 수행자다. 1918년에 태어났으니 지금은 아흔이 넘은 선생은 유교, 불교, 도교뿐 아니라 문학, 역사, 천문, 동서양 철학에도 두루 통달한 대가로, 대만에 거주할 당시 신년이나 나라 안팎의 중대 사안이 있으면 정치경제계 인사들이 자문을 구하는 국사로 추앙받았다. 선생의 강의는 유훈도를 비롯한 동양 사상과 역사에 대한 정확하고도 방대한 지식, 깊은 수행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엄중한 가르침,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유머 담긴 화법을 두루 갖춘 것으로 정평 있다.

부키는 2008년 ‘남회근 저작선’을 시작하여 첫 권인 『금강경 강의』, 2권인 『불교수행법 강의』, 3권 『주역계사 강의』로 절판된 책 복간을 끝냈다. 2011년 하반기에는 선생의 신작인 『중국 문화 만담』(가제)이 출간될 예정이다.



남회근 저작선 3

주역계사 강의

남회근 지음 | 신원봉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592쪽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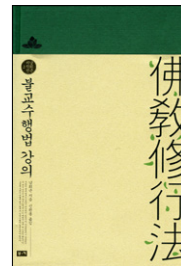
**한 편의 소설을 쓰듯 자유자재로 풀어낸 계사전 강의
공자가 체득한 인생의 경지를 남회근의 강의로 체험한다**

계사전은 공자가 역경을 연구하여 얻은 바를 소개한 보고서로, 역을 배우기 위한 입문서이자 지침서이다. 역경을 공부하기 위한 참고서 격인 십익 중에서 총론에 해당하는 계사전은 역경을 보기 전에 먼저 읽으면 그 체계를 잡아 가는 데 도움이 된다. 계사전은 공자의 저작이 아니라는 설도 있으나 그에 상관없이 상하 열두 편의 계사전 문장은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우나 뜻이 깊어 이미 그 자체로 고전이라 할 수 있다.

진지한 통찰과 탁월한 안목으로 엄격한 학문적 태도를 견지하나 전혀 무겁지 않게 강의하고 있어 선생의 ‘경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저서다.

남회근 저작선 2

불교 수행법 강의

남회근 지음 | 신원봉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800쪽 | 30,000원

**왜 수행을 해야 하고 어떻게 닦아 나가야 하는가?
부처님의 수승한 불법 수행 가르침이 되살아난다**

재가 및 출가 수행자들이 올바른 견지에서 심신을 닦아 성취를 이루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수행 지침서.

이 책은 대승과 소승을 넘나드는 경전, 대선사들의 각고의 수행 과정과 견도 및 행원을 담은 기록, 단계별 수증 경계 및 그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온갖 미혹과 타파 방법을 철저히 부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하나하나 짚어 준다. 이 과정에서 대승은 왜 소승을 기초로 해야 하는지, 부처님은 아들 라훌라존자에게 왜 호흡을 닦으라 권했는지, 현대인에게는 왜 화두 참선보다 호흡수행이 더 나은 방법인지, 좌선은 왜 해야 하고 사선팔정은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등을 이 책의 핵심인 견지, 수증, 행원의 관점에서 밝히고 있다.

남회근 저작선 1

금강경 강의

남회근 지음 | 신원봉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664쪽 | 25,000원

**석가모니부처와 제자 수보리의 대화가
남회근 선생의 강의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출가 수행자들조차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금강경을 남회근 선생은 어려운 경전을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더군다나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수많은 사례를 들어가며 명쾌하면서도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부처의 가르침을 한 치도 어긋남 없이 엄중하게 가르치고 있다. 석가모니부처와 수보리의 대화를 통해 공덕을 성취하여 머무름이 없는 무상의 지혜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밝히는 금강경은, 이치만 이해한다고 불법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 수행함으로써 다가갈 수 있음을 설파한다. 이 책은 선생이 대만에서 여러 차례 행했던 금강경 강의 중 1980년 강의를 기록한 것이다.



북리펀드 2011년 2월 선정도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과학

잘못된 과학 정보를 바로 가려내는 20가지 방법
세리 시세일러 지음 | 이충호 옮김 | 신국판 변형 | 292쪽 | 14,800원

매일 만나는 과학 정보에 거짓말이 넘쳐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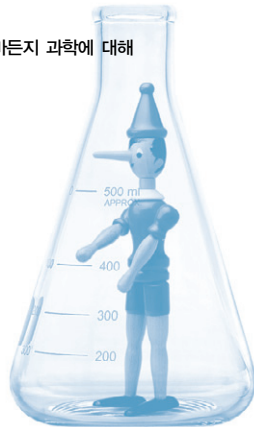
퀴즈보다 재미있는, 과학 이슈 진실 가리기!

과학 관련 뉴스가 넘쳐난다. 신제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도 늘 접한다. 그리고 우리는 뉴스라는 이유만으로 보도 내용을 그대로 믿고, 광고 문안에 혹해 제품을 구입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과학 뉴스에는 잘못된 정보가 많고 이따금 새로운 논쟁이라도 벌어지면 혼란에 빠진다. 우리가 과학자도 아닌데 달리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 책은 과학 수업이 지켜왔던 일반인이나 과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과학 이슈의 진실을 꿰뚫어볼 수 있는 20가지 방법을 가르쳐 준다.

- 과학의 쟁점들을 바르게 바라보는 접근 방법을 일러 주는 책이다. 같은 정보인데도 '비천원료 1% 사용' 보다는 '천원료 99% 사용'이라고 적힌 과자에 손이 가는 우리 생활을 생각하면 반성적으로 읽힌다.

:: 조선일보

- 주옥같은 회의주의자의 계명들이 나열되어 있다. 우리는 냉소적으로 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과학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 :: 이영남 과학책 번역가



북리펀드 2010년 12월 선정도서

세계를 움직인 과학의 고전들

가타 히로키 지음 | 정숙영 옮김 | 이정모 감수 | 신국판 변형 | 256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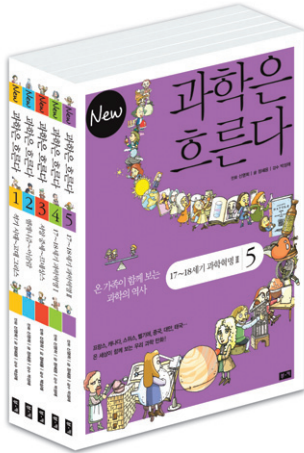
인간을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한 14권의 과학책

문과생은 알아야 할, 이과생은 읽어야 할 과학의 교양!

교토대 학생들이 뽑은 '가장 수업 받고 싶은 교수' 1위에 빛나는 가타 히로키가 14권의 과학 고전을 엄선하여 소개하고 있다. 갈릴레오의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로부터 다윈의 『종의 기원』, 카슨의 『침묵의 봄』, 그리고 왓슨의 『이중나선』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본질과 내용을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저자 자신의 과학 고전 탐독기라 할 수 있는 열네 편의 칼럼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에 대한 소개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책은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또 위대한 과학자들의 청춘은 어떠한지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과학책의 핵심 내용, 해당 과학자의 열정과 에피소드, 세상에 미친 영향 등을 담백하게 정리하고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도 소개한다. 친절하다. :: 조선일보

- 누구나 들어 봤음 직하지만 선뜻 펼쳐 읽기 쉽지 않은 과학 고전 14편을 쉽게 풀어냈다. :: 경향신문



전국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추천 만화
과학기술부 선정 우수 과학도서
문화콘텐츠진흥원 우수기획 실용 만화

New 과학은 흐른다

①②③④⑤

만화 신영희 | 글 정혜웅 | 감수 박성래 | 사륙배판 |
각 권 210쪽 안팎 | 각 권 12,000원

과학사와 세계사와 위인전이 만화 한 권에...

아랍에서도, 유럽에서도 읽는 우리 과학 만화!

고대부터 근대까지 주요한 과학 발견의 현장을 만화로 구성해 초등학생에서 대학생, 학부 모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과학을 즐기도록 한 교양 학습 만화. 단순히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나 과학 지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발견이 이뤄진 과정을 인류 문명사적 시각에서 풀어 나가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더불어 세계사의 주요 맥락과 그에 따른 인문·교양 지식까지 쉽게 체득할 수 있다. 2005년 출간되어 우수과학만화로 자리 잡은 『과학은 흐른다』의 개정판으로, 현재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중국, 대만, 시리아,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어 전 세계가 함께 읽고 있다.

- ① 석기 시대~고대 그리스
- ② 헬레니즘~이슬람
- ③ 서양 중세~르네상스
- ④ 17~18세기 과학혁명 I
- ⑤ 17~18세기 과학혁명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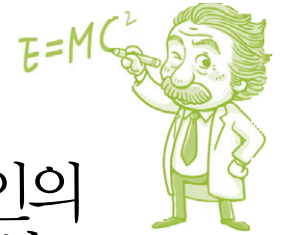


북리펀드 2011년 2월 선정도서



아인슈타인의 생각 실험실 ①②

송은영 지음 | 신국판 변형 | 각 권 260쪽 안팎 | 각 권 11,000원



‘아...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알아냈구나.’

상대성이론을 낳은 사유의 흐름을 재현한다!

보통 사람들이 울렁증을 일으키는 수학 공식은 되도록 줄이고, 약간의 물리 상식과 중학교 졸업생 수준의 수학 실력만 있으면 따라올 수 있도록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을 쉽게 풀어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상대성이론의 정립을 둘러싸고 19세기 물리학계가 느껴야 했던 당혹감과 아인슈타인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과정의 짜릿함, 그 밖에 과학계의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흥미진진하다.

- ① 빛을 쫓아 특수상대성이론에 이른다
- ② 엘리베이터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을 만나다

- 아인슈타인의 사고 과정, 그 ‘생각 실험’의 과정을 마치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간 듯 생생히 재현해 놓았다. 그 사유의 흐름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그런 창조적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문제의식을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고자 하는 책이다. ::한겨레
- 상대성이론을 쉽게 풀어낸 사고 실험 과정, 아인슈타인의 드라마틱한 인생사 등이 어우러져 과학서답지 않은 흥미진진함을 선사한다. ::경향신문

20세기 박물관 시리즈

유예된 유토피아, 공산주의

필립 뷔통 지음 | 소민영 옮김 | 사륙배 변형 | 252쪽 | 17,500원

러시아 혁명에서 소련 해체까지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전개 과정과 주요 역사적 단계들을 기술하고, 이어서 핵심 인물들의 일대기와 공산주의 체제와 관련된 주요 양상들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체제의 내적 논리를 전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해 준다.



인류의 영원한 굴레, 전쟁

프랑수아 제레 지음 | 고선일·유재명 옮김 | 사륙배 변형 | 283쪽 | 17,500원

20세기의 주요 분쟁, 분쟁의 주체와 동기, 21세기의 분쟁. 이렇게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독자들에게 지난 세기에 세계화된 존재로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전쟁과 분쟁의 냉혹한 시나리오를 따라가게 함으로써 그 동기와 주체,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양상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저속과 과속의 부조화, 페미니즘

사빈 보지오 발리시·미셸 장카리니-푸르넬 지음 | 유재명 옮김 | 사륙배 변형 | 265쪽 | 17,500원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만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인간' 여성이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20세기의 주요 사건과 여성사에 확을 긋는 중요 인물들을 통해 제시한다. 또 여성 문제에서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한다.

2007 출판문화진흥재단 올해의 청소년 도서 | 2007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



최초의 세계 제국,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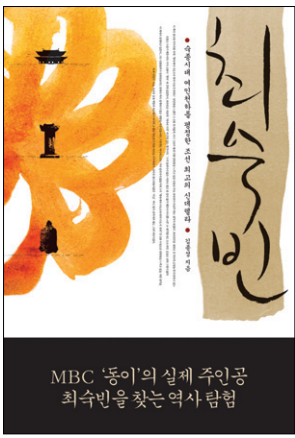
피에르 제르베 지음 | 소민영 옮김 | 사륙배 변형 | 248쪽 | 17,500원

최초의 세계 제국 미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본주의 국가인가, 국가 자본주의인가? 인종 차별주의 국가인가, 다문화주의 국가인가? 최종적으로 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모델인가, 재양인가? 이 책은 20세기 100년에 걸친 미국의 여정을 통해 그 답을 구하고 있다.

2007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북리펀드 2010년 8월 선정도서



최속빈

숙종시대 여인천하를 평정한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김종성 지음 | 신국판 | 264쪽 | 12,000원

조선사가 숨긴 한 여인의 삶이 오롯이 되살아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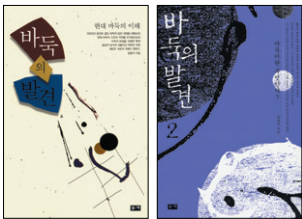
신사임당은 전통적인 현모양처 상을 대변하면서 최고액권인 5만 원권에도 그 초상이 모셔져 있다. 반면 성군 영조의 어머니 최속빈에 대한 역사 기록은 소략하기만 하다.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이자 숙종 시대 여인천하를 평정한 최속빈은 왜 이렇게 역사의 조명을 받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이 책은 정국 주도권을 노린 치열한 당쟁 구도와 17세기 동아시아 국제 정세, 최속빈과 함께 호흡했던 당대 인물들과의 관계를 추적하는 역사 탐험을 펼친다. 이 여정을 통해 노비 출신 천애고아로 침방나인을 거쳐 정1품 빈에 오르고 조선왕조실록이 인정하는 공식 미인 장희빈과 숙명의 대결을 펼치며 아들 영조의 시대를 준비한 한 여인의 면모가 오롯이 그려진다.

- 저자는 간접 사료와 당대의 사건, 그리고 동시대 인물들과의 관계를 모아 퍼즐을 맞추듯이 최속빈의 삶을 재구성해 냈다. :: 문화일보
- 저자는 최속빈을 단순한 '신데렐라'로 보지 않고 치열한 권력 다툼의 승자로 묘사한다. :: 세계일보

바둑의 발견

① ②

문웅직 지음 | 신국판 | 1권 399쪽, 2권 343쪽 | 각 권 13,000원



일상의 상식이 허물어진 바둑판 위에 새로운 사유의 지평이 열린다!

세계 최초로 바둑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해 우리 사회에 지적 충격을 준 저자가 바둑의 규칙이나 덩, 수를 이야기 하면서 바둑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1권에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세 차례의 패러다임 변천을 겪으며 성립된 현대 바둑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현재의 도달 수준과 의미를 분석한다. 2권에서는 바둑을 구성하는 조건들과 그 상호 작용에 대해 고찰하며 바둑의 사회적 진화 과정을 규명한다.

2005 한겨레 선정 올해의 책 20선

인문으로 읽는 주역

신원봉 지음 | 신국판 | 696쪽 | 23,000원



고금의 뛰어난 해석을 모아 주역의 본뜻을 구한다!

주역은 3천 년이라는 그 역사만큼이나 해석과 이론이 분분한 텍스트다. 이 책은 고금(古今)의 뛰어난 주역 해석을 한자리에 모아 가장 설득력 있는 주석을 취해 논리적으로 일관된 해석 틀을 가지고 64괘 괘효사의 본뜻을 구하고자 노력한다. 주역에 대한 오랜 신비화와 현학적 해석을 걷어 내고 나면, 주역이 평이한 생활 용어로 기술되어 인간사와 그에 대한 정제된 지혜와 교훈을 담은 한 편의 문학 작품임을 느낄 수 있다.

주역의 발견

문웅직 지음 | 신국판 | 384쪽 | 16,000원



주역이란 무엇인가? 이론과 논리로 추적한 주역의 본질

저자는 주역에 대해 상이한 주석과 해석이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 없는 부호와 의미 있는 부호를 혼동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논증한다. 또 은유의 속성을 헤아리지 못하고 역경의 언어를 이해하려 했기에 해석 오류가 수없이 쌓였음을 밝힌다. 나아가 점(占)이 결코 허황된 미신이 아니며 얼마든지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베토벤 심리 상담 보고서

아이에게 부모는 무엇일까?

김태형 지음 | 신국판 변형 | 280쪽 | 12,000원



부모의 영향력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베토벤과 나(지은이)의 가상 대화를 바탕으로 한 심리 상담기. 한 인간의 심리적 상처는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에 겪었던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자였던 반면 어머니는 지고지순한 모정의 소유자로 세간에 알려져 있지만, 베토벤에 관한 전기와 자료들을 참고해 살펴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다.

2008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삐딱한 예술가들의 유쾌한 철학 교실

프랑스어 다고네 외 22인 지음 | 신지영 옮김 | 신국판 | 228쪽 | 11,000원



자유로운 예술가 지식인 그룹이 바칼로레아에 던지는 도전장!

프랑스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 '바칼로레아'에 출제된 철학 문제들에 대해 스물두 명의 예술가·지식인들이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답한 책. 단편 소설이나 시, 에세이는 물론, 심지어 사회극이나 독백, 삽화가 곁들여진 텍스트, 만화 형태로 제시되는 답을 통해 철학이 철학사에 등장하는 철학자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개념, 이론만을 외우는 학문이 아님을 보여 준다.

2008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

인간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앙드레 랑가네 외 지음 | 박단 옮김 | 신국판 | 253쪽 | 10,000원



예술, 사랑,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프랑스의 권위 있는 주간지 『엑스프레스』의 편집주간인 도미니크 시모네와 유전학자인 앙드레 랑가네, 동굴 전문가인 장 클로트, 신석기 시대 전문가인 장 갈레느가 펼치는 300만 년 동안의 인류 이야기. 전문 용어와 전문 지식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치 아이들처럼 모든 문제들, 특히 가장 단순하고 고지식한 문제들을 제기하며 과학적이면서 상식적으로 그 답을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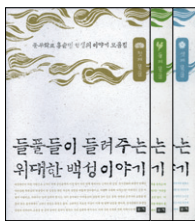


김교신 전집 (전7권)
노평구 엮음 | 각 권 400여 쪽 | 각 권 18,000원

김교신을 말한다
노평구 엮음 | 신국판 | 404쪽 | 14,000원

일제 시대 '조선의 성서 위에' 세우고자 함석헌 등과 함께 『성서조선』을 발행하면서 초대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 신앙을 주창한 김교신 선생의 글 모음집. 1권 인생론은 진정한 기독교도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에세이를, 2권 신앙론은 기독교도의 신앙관과 신앙 태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3권 성서 개요는 구약 전편과 신약 일부의 집필 배경과 간단한 내용 요약을 통해 신구약을 한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했고, 4권 성서 연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조명한 그리스도론이자 그리스도 신도론이다. 5~7권은 김교신 선생의 엄정한 내면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일기 모음이다. 별권 『김교신을 말한다』는 민족 기독교, 형제화된 교회 대신 갈릴리 호반의 어부들이 가졌던 초대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 신앙을 주창한 김교신 선생에 관한 회고록 모음집이다.

42회 한국출판문화상 전집 부문 수상



들풀들이 들려주는 위대한 백성 이야기 ①②③
홍순명 지음 | 신국판 | 213쪽·229쪽·259쪽 | 1·2권 6,800원 3권 7,900원

풀무학교 홍순명 선생이 우리 전래 이야기의 비교육적인 면들을 바로잡아 현대적이고 교육적인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 재구성했다. 선생은 심청이와 흥부, 흥길동, 선녀와 나무꾼 등 전래동화 주인공들에게 우리 민족이 겪은 모든 수난을 투영하면서 이 땅의 민초들이 들풀처럼 깨끗하게 살아가며 만드는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묶음 새 심청전 / 새 흥부전 / 선녀와 나무꾼

둘째 묶음 새 흥길동전 / 새 춘향전

셋째 묶음 해님 달님 / 피리 소년 / 두꺼비 / 흥동 마당극-고루 화(和) 세상 / 팔도 민요

47회 한국출판문화상 어린이·청소년 부문 수상
2004 문화관광부 교양 부문 추천도서
2004 전교조 선정 읽을 만한 책
2004 책따세 선정 여름방학 권장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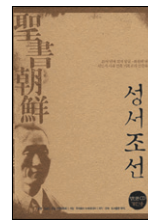
홍순명 선생님이 들려주는 풀무학교 이야기
홍순명 지음 | 신국판 | 272쪽 | 9,500원

풀무학교의 역사와 교육,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그 지역의 이야기. “노동의 참된 가치를 알며, 사람과 지역과 자연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이 시대의 평민을 길러 내자.”는 기치 아래 1958년 설립된 풀무학교는 전교생이 80명 남짓한 작은 학교이다. 이 책은 풀무학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 주면서 이 시대 교육은 어떠해야 하며,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남겨 주어야 할지 고민하게 한다.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루이스 프로이스 지음 | 국립진주박물관 엮음 | 신국판 | 364쪽 | 16,000원

임진왜란을 전후해 포르투갈 선교사 프로이스가 교황청에 보고한 일본 정세 보고서. 프로이스의 기록은 당시 일본에서 포교를 목적으로 활동하던 예수회 신부들이 남긴 기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특히 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이었던 서구인의 눈에 비친 임진왜란 당시의 일본 정세나 전쟁 발발과 전개 모습 등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성서조선 영인본 CD
김교신 외 지음 | 김교신전집간행위원회 발행 | 90,000원

김교신, 함석헌 선생 등이 일제 시대 '조선의 성서 위에' 세우기 위해 발행하던 기독교 잡지 『성서조선(聖書朝鮮)』의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158권 전권의 영인본(影印本)을 수록한 CD. 『성서조선』은 민족적 색채가 강한 글을 자주 실은 탓에 일제에 의해 관련자 전원 구속, 책자 전부 압수·소각, 구독자 전원 연행이라는 가혹한 탄압을 받다가 1942년에 폐간되었다.



어느 무교회주의자의 구약성서 읽기
박상익 지음 | 신국판 | 254쪽 | 8,000원

서양사를 전공한 저자가 구약성서 내용을 역사적 맥락에서 기술한 책.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을 다룬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 근동 지방의 지형학적 특징과 히브리 종교의 특수성 및 차별성을 제시하고, 12소(小)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 그들이 자신들의 시대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지 살피고 있다.

북리펀드 2010년 12월 선정도서



뇌는 답을 알고 있다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뇌 클리닉
 대니얼 G. 에이멘 지음 | 김승환 옮김 | 신국판 변형 | 392쪽 | 16,000원

**20년 이상 3만 건 넘는 뇌 영상 분석으로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뇌의 비밀을 풀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중요하지만 다른 장기와는 본질적으로 그 중요도가 다른 것이 바로 뇌다. 뇌에 일어난 극히 작은 손상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때로 인간 존엄성마저 잃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뇌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잘 두지 않는다. 오히려 성형수술 등 겉으로 보이는 것에 온통 신경을 쓴다.

뇌의 건강은 우리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체 변화, 성격 문제, 업무 능력 저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뇌가 건강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지만 사람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 이 책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9가지 뇌 원칙을 소개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뇌 건강 프로그램으로 이끈다.

- 훌륭한 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까지 실려 있어 안에서 역할을 톡톡히 한다. 좋은 뇌를 가꾸는 비결이 들어 있는 2부는 이 책의 가장 유용한 부분이다. :: 서울신문
- 이 책은 오래도록 아련하게만 보이던 뇌에 대한 정보를 한데 엮었다. 자기계발에 관심 있는 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한다. 특히 아이들을 건강하게 기르고 싶은 부모나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보석 같은 책이다. :: 마이클 거리언 『소년들의 마음과 소녀들의 불안』의 저자

**다윈은 세상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1859년의 과학과 기술
 피터 매시니스 지음 | 석기용 옮김
 신국판 | 416쪽 | 16,000원



찰스 다윈은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인 1859년 11월 24일에 『종의 기원』을 출간했다. 저자는 이 역사적인 해에 일어난 일들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종의 기원』이 나왔기 때문에 1859년이 의미 있는 해가 된 것이 아니라 1859년과 그 전후에 걸쳐 붓물 터지듯이 일어난 큰 변화가 『종의 기원』을 낳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종의 기원』은 단지 1859년이 이룩한 수많은 혁신 중 하나일 뿐이었다.

달력과 권력

이정모 지음 | 신국판 | 260쪽 | 8,500원



달력에 얽힌 사건을 통해 과학과 종교, 권력의 야합과 대립을 밝힌 역사서이자 과학서. 기원전 6000년경부터 현대의 그레고리우스 달력에 이르기까지 달력의 변천사와 그에 얽힌 얘기, 달력과 관련된 여러 궁금증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또 로마 공화정의 관리들이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해 뇌물을 주며 달력을 조작했던 이야기나 무솔리니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파쇼 달력,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만든 소비에트 달력 등의 일화 또한 재미있게 읽힌다.

2001 과학기술부 선정 우수 과학도서

**요리로 만나는
 과학 교과서**

이영미 외 지음 | 신국판 | 280쪽 | 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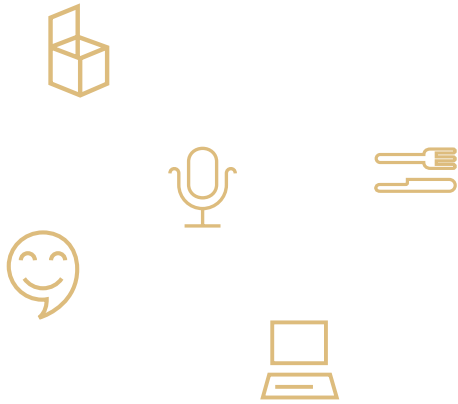


현직 과학 교사인 엄마가 주방에서 두 딸과 함께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재료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요리를 만들면서 중학교 과학 교과 과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기초 과학 입문서.

시금치, 밀가루, 식초 등 어느 집이나 있는 재료를 이용한 과학 실험까지 실린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주방이 '문턱 낮은 실험실'로 변신한다.

- 2005 서울시교육청 선정 추천도서
- 2004 책따세 선정 겨울방학 추천도서
- 2004 과학기술부 선정 우수 과학도서
- 2004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 2007 아침독서 추천도서
- 2006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 2005 책따세 선정 겨울방학 추천도서
- 2004 출판인회의 선정 이달의 좋은 책
- 2004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

그 일, 정말 할 만합니까? 각 전문직 종사자들이 전하는 직업의 세계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 주기 위해 기획된 책입니다.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실상은 어떤지, 어려움과 보람은 무엇인지, 대우는 어느 정도인지, 미래 가치는 어떤지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고 전문성으로 무장한 '직업인'만이 살아남는 시대. 진로를 고민하는 이 땅의 청소년과 대학생, 예비 사회인, 진로 지도에 고심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에게 그 직업의 실상을 가감 없이 전달해 정말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인지 미리 가늠해 보는 잣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피상적인 이해와 왜곡된 정보로는 결코 결정할 수 없는 자신의 미래, 직업. 이 세상의 수많은 전문 직종에 대한 현장 보고서인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가 적성에 맞고 좋아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쓴 직업 이야기 :: 세계일보
-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 주는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 :: 연합뉴스



출판편집자가 말하는 편집자

정은숙 외 22인 지음 | 신국판 | 256쪽 | 9,500원



1년을 갓 넘긴 초짜부터 출판사를 창업한 25년차 베테랑까지, 또 문학, 인문, 예술, 경제경영·실용, 어린이·교육 분야를 비롯해 학습, 어린이 학습만화, 대학출판부까지 여러 분야에서 책을 만드는 출판편집자 23인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고 있다. 편집자의 개성이 어떻게 저자의 원고와 어우러져 책에 반영되는지, 책 만드는 일이 장르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획 디자인 제작 홍보 등 책 전반에 관여하는 편집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 준다.

광고인이 말하는 광고인

국정애 외 19인 지음 | 신국판 | 272쪽 | 9,500원



20명의 광고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광고인 생활 보고서. 짧은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광고를 흔히 '자본주의의 꽃', '15초의 예술'이라고 한다. 이 책은 광고의 화려함 뒤에 숨어 '크리에이티브'에 목숨을 거는 광고인의 다양한 세계를 한눈에 보여 준다. 이 밖에 광고 제작 후기와 프레젠테이션 체험기, 공금증 14문 14답 등은 광고인이 되려는 이들에게 선배 광고인들이 들려주는 값진 조언이다.

스튜어디스·스튜어드가 말하는 항공 승무원

원혜경 외 11인 지음 | 신국판 | 212쪽 | 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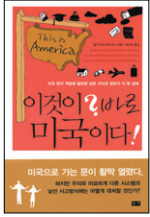


12명의 스텐어디스·스튜어드가 자신의 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항공승무원 생활 보고서. 객실 승무원, 객실 팀장, 외국 항공사, 지역 민영 항공사, 객실 훈련원, 승무원 양성 학원, 이미지 컨설턴트 등 항공 승무원의 일과 생활, 보람과 애환을 솔직하게 전한다. 항공 승무원 생활의 노동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보수는 어떤지, 전망은 밝은지, 항공 승무원이 되는 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풀어 준다.

- 1 PD가 말하는 PD 2 기자가 말하는 기자 3 의사가 말하는 의사 4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5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
- 6 디자이너가 말하는 디자이너 7 요리사가 말하는 요리사 8 판사·검사·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9 만화가 말하는 만화가
- 10 방송작가가 말하는 방송작가 11 스텐어디스·스튜어드가 말하는 항공 승무원 12 광고인이 말하는 광고인
- 13 출판편집자가 말하는 편집자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근간) 군인이 말하는 군인(근간)

이것이 바로 미국이다!

올가 마크 랜스버그 지음 | 박수연 옮김 | 신국판 변형 | 352쪽 | 13,800원



외국인이 미국에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에서 법규 위반으로 심각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행동까지, 미국에서 겪을 법한 모든 상황이 망라되어 있는 책. 숙박, 식사, 대중교통, 전화, 면허, 은행 거래, 취업, 세금, 결혼, 이혼 등 62가지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다. 각계각층 미국인 2000명을 인터뷰하였고, 이민법·민법·형법·상법·세법·가족법 전문가의 감수를 거쳤다. 미국으로 출장, 연수, 관광, 유학, 취업, 이민을 가려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미국 생활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시시콜콜 생생육아

베베하우스 아동발달센터 역음 | 박호진 감수 | 사륙판 | 376쪽 | 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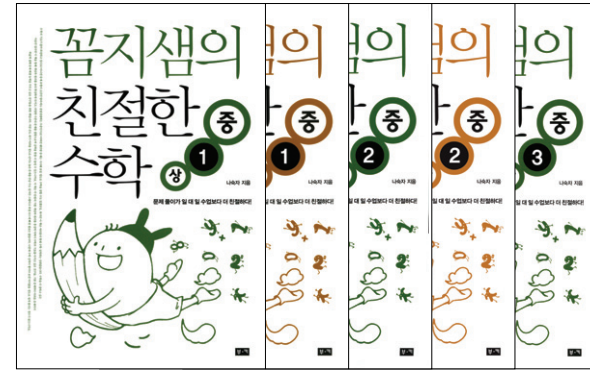
베베하우스 60만 엄마들이 묻고 강추한 육아 체험 노하우. 대가족이 모여 살던 옛날과 달리 경험적으로 얻은 육아 지식을 전수할 형편이 안 되는 현대 사회에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실질적으로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사항들을 질문하고, 이런 질문에 대해 경험 있는 엄마들이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답변한 육아책. 육아 포털 중 가장 게시판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베베하우스 게시판에서, 그것도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답변과 질문만을 뽑아 엄선했다.

나의 영어 공부 이력서

김민식 외 16인 지음 | 신국판 | 264쪽 | 9,800원



‘한국인 토익 점수 비영어권 중엔 최고!’라는 헤드라인에 한숨만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영어 고수 17명이 자신들의 영어 공부 노하우를 털어놓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들 17명도 처음부터 영어 고수는 아니었다. 이들도 남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영어에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 이웃이었으나, 갖은 고생 끝에 어느새 영어 도사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 책은 영어개나 한다는 17명이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 남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를 솔직담백한 어조로 밝히고 있다.



꼼지샘의 친절한 수학

중1-상·하, 중2-상·하, 중3-상

나숙자 지음 | 신국판 변형 | 각 권 400쪽 내외 | 각 권 11,000원



개념도 알고 원리도 이해한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한다고요?

수학의 기초 체력 단련은 개념 파악과 원리 이해에 있는데,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꼼지샘의 친절한 수학』은 문제집인데도 개념과 원리에 대해 중간중간 계속해서 일깨워 줍니다.

문제 유형을 조금만 바꿔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요? 바로 그래서 수학 문제집은 문제보다 문제 풀이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꼼지샘의 친절한 수학』은 “이건 알지?”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이를 건너뛰지 않으니 모르는 과정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는 것이고요.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다고요? 걱정 마세요. 『꼼지샘의 친절한 수학』의 다양한 연습 문제를 접하다 보면 난이도 높은 문제에도 어느덧 익숙해지게 되니까요.

- 중1 상권 | 집합 / II 자연수 / III 정수와 유리수 / IV 문자와 식 / V 함수 / 정답 및 풀이
- 중1 하권 | 통계 / II 기본 도형 / III 작도와 합동 / IV 평면도형의 성질 / V 입체도형의 성질 / 정답 및 풀이
- 중2 상권 | 유리수와 근사값 / II 식의 계산 / III 연립방정식 / IV 부등식 / V 일차함수 / 정답 및 풀이
- 중2 하권 | VI 확률 / VII 삼각형의 성질 / VIII 사각형의 성질 / IX 도형의 닮음 / 정답 및 풀이
- 중3 상권 | 실수와 그 계산 / II 식의 계산 / III 이차방정식 / IV 이차함수 / 정답 및 풀이 / 제곱근표



부모와 자녀가 만날 싸우는 공부 고민 55가지 중학생 공부 고민 상담실

이지은 지음 | 신국판 변형 | 336쪽 |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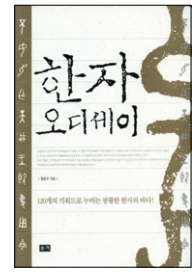
오랜 학습 상담 경험과 강연, 칼럼 기고, TV 출연 등으로 중학생들과 늘 가까이 지내고 엄마들과 호흡해 온 저자가 공부 포인트를 속 시원하게 짚어 준다. 어떻게 하면 '공부의 힘'을 키우는 동시에 모든 공부의 기본인 '학교 공부'를 따라잡고, 학원과 과외 등 '학교 밖 공부'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소중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조목조목 알려 준다.



한자 오디세이

정춘수 지음 | 사륙배판 | 472쪽 | 16,000원

120개의 키워드로 누비는 한자의 바다!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 한자 학습서 역할을, 보통 때에는 자전(字典) 겸 자원(字源) 사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 이 책은 어설픈 파자(破字)가 아니라 현대의 갑골문 연구 성과에 기반해 재정리한 120개의 핵심 한자를 통해 2000여 생활 한자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한눈에 깨치는 우리 아이 처음 한자

정춘수 지음 | 이해경 그림 | 변형판 | 320쪽 | 9,800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는 한자가 무엇을 흉내 낸 것인지, 어떻게 짝지어진 것인지에 따라 그 이야기는 사람과 자연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려 주기도 한다. 그림과 짧은 이야기를 통해 한자 속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 어휘들을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줄로 익히는 초등한자 650 ① ②

정춘수 지음 | 이해경 그림 | 신국판 | 248, 236쪽 | 각 권 12,000원

초등학교 권장 한자 600자+50자와 각 한자의 기본 정보(획수, 부수, 한자 급수)를 실은 초등 고학년용 한자 학습서. 8급에서 5급까지 초등학교용 한자 급수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고, 초등 교과서에서 가려 뽑은 1000여 자의 낱말도 실려 있어 교과 공부를 위한 어휘력도 늘릴 수 있다.



단순한 도형 문제를 넘어선 기하학의 기초로 통합 논술의 논리적 사고를 다진다!

설명이 과외 교사보다 자세한 테다 유머러스하기까지 해서 수학의 개념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평평이 난 『친절한 수학 교과서』의 '도형' 편. 이 책만 있으면 바쁜 선생님 불잡고 늘어지지 않아도, 상위 20퍼센트만을 향해 강의를 진행하는 학원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아도 도형을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단순한 도형 문제의 풀이가 아니라 기하학적 기초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통합 논술'의 기초인 논리적 사고를 다지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 1권 도형의 기초
- 2권 도형의 성질과 닮음
- 3권 피타고라스와 원

수학에서 '통합 논술'의 기초까지 친절한 도형 교과서 ① ② ③

나숙자 지음 | 신상희 그림 | 신국판 | 각 권 270쪽 내외 | 각 권 11,000원



수학을 잘하고 싶은 중딩들을 위한 친절한 수학 교과서 ① ② ③

나숙자 지음 | 신상희 그림 | 신국판 | 각 권 250쪽 내외 | 각 권 9,800원



엄마와 아이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수학책!

23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수학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어느 수학 교사의 수업 시간을 그대로 옮겨 놓은 책. 아이들 눈높이에서 수학의 원리와 기초 개념을 설명하면서 수학과 관련된 역사적 에피소드나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생생한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 책은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 갖고 있는 '재미 없고 따분한 과목'이라는 거부감을 없애 주는 것은 물론, 수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이고 얼마나 유용한지 바로 '갑'이 오게끔 해 준다.

- 1권 집합과 수 편
- 2권 식과 함수 편
- 3권 통계와 확률 편

2011년 부키에서 출간될 주요 도서를 소개합니다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

최형선 지음 | 신국판 변형 | 256쪽 | 울컥러

지구 생태계를 대표하는 여덟 동물을 통해 살펴본 아름다운 진화 이야기. 늘 같은 자리에서 평화롭게 살아왔을 것 같은 동물들이 사실은 수천만 년 전부터 끊임없이 환경을 극복하고 다른 동물과의 경쟁에서 돌파구를 찾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여 준다.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 (전문직 리포트14)

이상림 외 16인 지음 | 신국판 | 200쪽 내외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건축가 17인이 일에 대한 속내와 건축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펼쳐놓았다. 또 도시 계획과 도시 설계, 구조 설계, 조경, 건축CM에 이르는 더 넓은 건축가의 세계와 건축 유학, 건축 저널 등 건축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빠짐없이 담고 있다.

긍정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지음 | 전미영 옮김 | 300쪽 내외

자기계발서와 동기 유발 산업, 초대형 교회에서 긍정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깊고 넓게 뿌리내린 긍정적 사고의 실체를 파헤친다. 저자는 긍정주의가 신자유주의 시대의 구조 조정과 양극화라는 불편한 현실을 변호한다고 지적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기만적인 긍정이 아니라 '신중하고 냉정한 현실주의'라고 역설한다.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에릭 라이너트 지음 | 김병화 옮김

오늘날 국가 간 소득 격차가 극심한데도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와 경제 이론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루지도 않는다. 저자는 주류 경제학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경제 이론과 역사적 사실, 개인적 경험을 통해 드러낸다.

무취미의 권유

무라카미 류 지음 | 유병선 옮김

38가지 평이한 소재를 통해 일상의 단면을 간결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포착한 무라카미 류의 잠언집. 통념에서 벗어난 신선한 견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당당함, 일상적인 소재에 대한 탁월한 안목으로 인생의 전환기를 넘은 소설가가 바라본 세상 읽기는 예리하다 못해 통쾌하기까지 하다.

부·키에 놀러 오세요!



부키 블로그 책/공/장/부키 <http://blog.naver.com/bookiemb>
종이책이 말해 주지 않는 흥미진진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부키가 출간하는 책의 저자와 역자의 자세한 소개, 기획 편집 제작 과정의 재미난 에피소드, 몰라도 그만이지만 알아 두면 유용한 출판 상식까지 부키의 책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부키 오픈캐스트 <http://opencast.naver.com/bk758>
'최근 트렌드는 어떻게? 요즘은 뭐가 이슈야?' 속도전 속에서 항상 반 박자 늦다고 생각하시는 독자라면 부키 오픈캐스트를 구독하세요. 눈이 핑핑 돌아가는 세상, 꼭 알아야 할 것 중심으로 책에서 뽑은 알짜배기 진단과 해법만 고르고 골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세상을 보는 맞춤형 거울, 부키 오픈캐스트입니다.



트위터 [@bookiepub](http://www.twitter.com/bookiepub)
140자 속에 바로 오늘 알아야 할 유용한 책 정보부터, 출간 소식, 때로는 머리를 식히는 재밌는 얘기까지 가득합니다. 부키와 가장 빨리 소통하는 법! 지금 부키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트위터에서만 진행되는 깜짝 이벤트는 덤으로 즐기세요!



예스24 책 블로그 <http://blog.yes24.com/bookiemb>
온라인 서점에 포진한 부키 책 블로그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예스24에서 진행되는 부키 서평단 이벤트는 바로 이곳에서 신청을 받는답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있으세요? 그럼 예스24 책 블로그를 살펴보세요.



장하준 카페 <http://cafe.naver.com/hajoonchang>
대한민국 100만 독자가 열렬히 호응하고 있는 장하준 교수의 팬 카페입니다. 장하준 교수의 생생한 강의를 실려 있는 인터뷰 영상과 각종 강연회 내용 모음은 물론, 장하준 교수의 한국 내 일정까지 알 수 있습니다.